Vol. 12 No. 30 August 5 2016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보스톤 중앙일보 사라진 이유

뉴욕중앙일보에 상표권, 저작권 사용료 미납으로 피소
보스톤 중앙일보 사라지고 바로 아시아타임즈로 변신
보스톤 독자들에게 단 한 번도 해명 또는 알림글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페리카나 치킨 라이센스를 내주겠다며 3만 5천불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기소돼 8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 중앙일보 보스톤지사장이자 아시아타임즈 사장 박모씨가 뉴욕중앙일보로부터 지난 3월 피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중앙일보는 3월 22일 뉴욕 퀸즈지방법원에 박모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로순워터박유한회사(Losoon Water Park, LLC)를 상대로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LA에서 발행하는 주간 신문 선데이 저널은 "소송장에서 중앙일보가 자신의 주소를 퀸즈로 기재, 뉴욕중앙일보임을 분명히 했다"고 4월 22일자로 보도했다.

Losoon Water Park LLC는 박모씨가 페리카나 치킨 라이선스를 계약할 때 피해자 김영중씨로부터 선도금을 지급받았을 때 수표를 받았던 유한회사다. 매사추세츠 주 무부는 2014년 8월 이후 이 회사를 폐쇄한 상태다.

선데이 저널에 따르면 뉴욕중앙일보는 2014년 7월 1일 로순워터박유한회사와 중앙일보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사용하는 대신 사용료를 중앙일보에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박 씨는 보스톤 중앙일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했었다. 로순워터박유한회사는 계약 1년 뒤인 2015년 여름부터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발행했으며 9월 28일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파기를 통보 받았다. 10월 27일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재차 통보했지만 박모씨는 계속 보스톤중앙일보를 발행했다.

선데이 저널은 "박모씨는 중앙일보 로고와 아시아타임즈, 아시아리스트라는 이름을 해당 사무실에 동시에 걸어놔 여전히 중앙일보로 오인케 했다는 것이 중앙일보 측의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보스톤중앙일보업소록〉을 전혀 상의없이 발행해 이 또한 중앙일보가 발행한 것으로 생각케 만들었다.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중앙일보 측은 "로순워터박유한회사가 중앙일보를 사칭, 광고영업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뉴욕중앙일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까지 실제적인 해당 지역인 보스톤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보스톤 지역 광고주들의 경우 중앙일보로 오인해 광고를 게재하는 피해를 유발시켰다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 ▸▸2면으로 계속

오바마 대통령 가족 또 마타스 비냐드에서 휴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바마 대통령 가족이 올해도 휴가지로 보스톤 인근의 섬 매사추세츠 마타스 비냐드(Martha's Vineyard)를 찾는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가족은 8월 6일부터 21일까지 이 섬에서 여름휴가를 즐긴다. 올해로 7년째 마타스 비냐드를 찾는다.

이번 휴가에서는 공식일정을 전혀 잡지 않고 임기 마지막 해의 휴가를 즐길 예정이라고 백악관측은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대통령 가족은 비냐드 사운드(Vineyard Sound)가 내려다 보이는 칠마크(Chilmark) 소재 7베드룸 9베스룸 짜리 집을 렌트해 휴가기간 동안 기거한다. 이 집에는 고급 수영장과 농구코 ▸▸2면으로 계속

마타스 비냐드는 클린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휴가지로 유명

지난해 마타스 비냐드를 휴가차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고 있는 주민들

▸▸1면에 이어서

트가 딸려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이 섬에서 도매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크리시 킨스맨 씨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마타스 비냐드의 길은 아주 복잡해 대통령 등 유명인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프리이버시를 존종하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오바마 가족들은 방문 첫해에는 서점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해가 갈수록 활동의 폭을 줄이고 가족끼리 보내거나 골프를 즐기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하는 경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마타스 비냐드 방문에서 많은 시간을 골프로 시간을 보냈으며 친분이 있는 주요 인사들과 골프를 함께 쳤다. 지난해에는 대표적으로 NBA MVP였던 스티븐 커리 그리고 코메디언 레리 데이비드와 함께 골프를 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과거에는 전 보스톤 셀틱스 농구선수였던 레이 앨런과 4번이나 골프를 쳤으며 한번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골프를 치기도 했다. 사교적인 빌클린턴은 골프를 늦게 치기로 유명하다. 빌 클린턴의 조가 너무 늦게 나가 골프코스 레인저가 빨리 가라고 재촉을 했을 정도라고.

이와 반면 오바마는 속도가 빠르며 잘 눈에 띄지 않게 친다. 심지어 경호원들도 한 홀 정도 떨어져 경호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의 휴가지 마타스 비냐드 가는 길.

마타스 비냐드는 클린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휴가지이며 데이비드 레터맨, 맥 라이언, 레리 데이비드 등 유명인들의 서머하우스이기도 하다. 많은 음악가들 예술인들도 여기에 거주한다. 260평방 킬로미터인 공간이지만 개인적인 휴식을 찾는 사람들의 휴양지다.

보스톤에서 마타스 비냐드를 가기 위해서는 폴머스(Falmouth, MA)에서 배를 타거나 하이애니스(Hyannis, MA)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마타스 비냐드를 방문할 때는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배를 운영하는 증기선공사(Steamship Authorithy) 웹사이트에서 사람은 물론 차량 승선까지 모두 예약할 수 있다. 폴머스에서는 배편이 많지만 여름철 성수기 때에는 거의 원하는 시간 자리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다. 상당수의 여행객들은 웨이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하이애니스의 경우 배편이 적으며 비교적 예약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또는 비수기에 방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배출발 시각 30분에서 1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만 직원들은 빨리 도착한 차가 내릴 때 빨리 내리도록 차를 싣는다.

섬을 방문하기 전, 방문 예정지를 숙지해두어야 한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물가가 약 두배 정도 비싸다. 와인 및 맥주 의약품 등 생필품은 미리 사서 가져가는 센스도 필요하다.

hsb@bostonkorea.com

뉴욕 중앙일보가 보스톤 중앙일보를 상대로 상표권 도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LA 소재 언론사인 〈선데이 저널〉에 4월 게재된 내용

중앙일보, 〈로순워터박 유한회사〉 상대 손배소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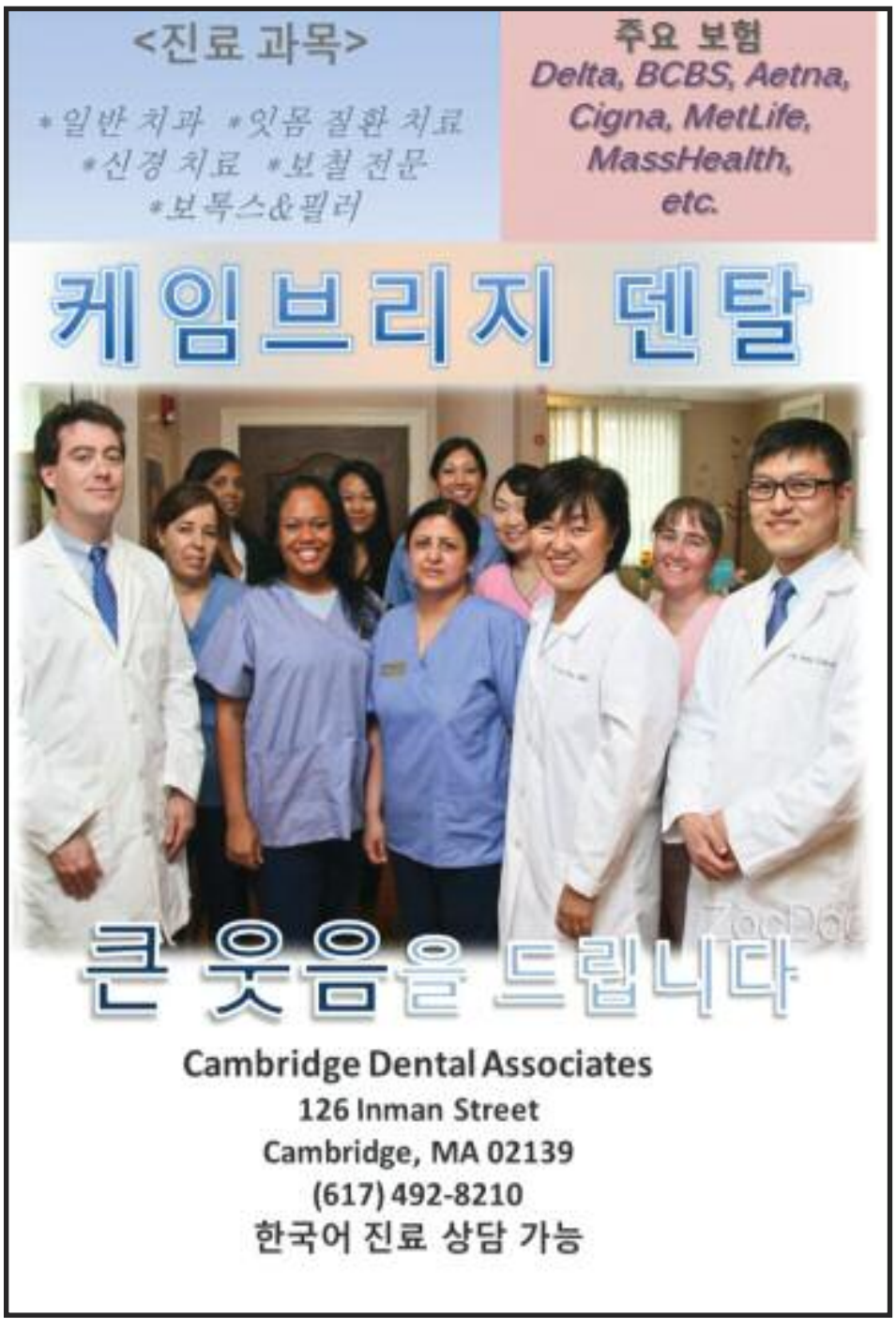
▸▸1면에 이어서

을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한인회 김경원 회장은 "뉴욕의 중앙일보가 보스톤의 중앙일보와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궁금했다.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한 것이라면 내용을 모르는 보스톤 구독자들에게는 일절 알리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스톤 구독자들은 내막을 모르니 뉴욕 중앙일보가 보스톤에 있는 한인들을 무시한 것이다. 책임지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뉴욕중앙일보 배종욱 사장은 4일 전화통화에서 "좋지 않게 끝난 일"이라며 "보스톤 독자들에게 일릴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배종욱 사장은 "더구나 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이며 정확하게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 판결이 나면 그때 어떤 형태이든 알리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사건에 앞서 박모씨는 보스톤중앙일보에 페리카나 대리점 광고를 게재해 피해자 김영중씨에게 페리카나 라이선스 등 각종 광고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선수금으로 3만5천불을 받았다. 그러나 박모씨는 사실상 페리카나 라이선스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자 김영중씨는 경찰이 신고했고 현재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 미국내 최고 학군

2016년 월렛허브, 247월스트 등은 매사추세츠 1위 선정
금메달, 은메달 학교수로 순위집계한 US뉴스는 5위 선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초의 공립고등학교가 설립되었던 매사추세츠주가 미국내 공립학교 학군중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재정 소셜 네트워크인 월렛허브(WalletHub)가 최근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내 50개 주 중 뉴저지, 버몬트 등을 제치고 최고의 학군으로 선정됐다.

월렛퍼브 연구진들은 미국내 각주 학군을 학군의 질과 안전도 두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평가했다. 학군의 질 평가에서는 평균SAT 성적, 평균 ACT 성적, 수학성적, 읽기 성적, 학생대교사비율, 중퇴율 등을 중심으로 가중치를 두어 점수를 산정했다. 안전도는 학교폭력 안전도, 10만명당 징계율, 불링사고율, 10만명당 징역형 비율 등에 가중치를 두었다.

매사추세츠주는 학군의 질과 안전도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학군의 질 평가 부분에서는 평균 수학 및 읽기 점수, 평균 ACT점수 등에서 1위를 기록했다. 뉴잉글랜드 지역 커네티컷은 3위, 버몬트는 4위 뉴햄프셔는 6위 등 뉴잉글랜드 지역 공립학교 학군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주요 언론이 실시한 학군 평가에서도 매사추세츠 주는 1위 또는 상위에 속한다.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경제 온라인 뉴스 247월스트(247Wallst.com)의 최고학군 평가에서도 매사추세츠 주는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순위	월렛허브 2016 8월	247월스트 2016년 1월	유에스뉴스 2016년 4월
1	매사추세츠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2	뉴저지	뉴저지	커네티컷
3	커네티컷	버몬트	캘리포니아
4	버몬트	메릴랜드	플로리다
5	위스콘신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6	뉴햄프셔	뉴햄프셔	워싱턴DC
7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메인
8	메인	와이오밍	유타
9	델라웨어	네브라스카	로드아일랜드
10	미네소타	뉴욕	뉴욕

247월스트는 2016년 1월 에듀케이션위크에서 발행하는 '퀄러티카운트' 리포트를 바탕으로 각주 학군의 순위를 정했다. 이 뉴스는 매사추세츠의 강력한 사회적, 경제조건이 학군의 건전성을 바쳐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무조건 부유하다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의 자녀들의 성적이 좋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학생들은 70.2%가 연방빈곤선 두배 이상의 소득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는 미국내 최고다라고 밝혔다.

이 언론의 조사에서 2위는 뉴저지, 3위는 버몬트, 4위는 메릴랜드, 5위는 커네티컷 등의 순이었다.

2016년 4월 유에스뉴스는 자체 선정한 금, 은메달을 받은 학교 수를 중심으로 미국내 최고 학군을 선정했는데 매사추세츠는 메릴랜드, 커네티컷,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에 이어 5위에 선정됐다. 다시 말하면 전체 주의 학군을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렉싱톤에 거주하는 정현우(47, 가명)씨는 이 같은 소식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정씨는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이유중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좋은 학교 시스템 때문"이라고 말하고 "청교도적인 분위기와 최고의 대학들이 있는 매사추세츠가 자녀들을 교육하기에는 최고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주내에서도 가장 좋은 학군으로 꼽히는 렉싱턴 고등학교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Plus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ummer Schedule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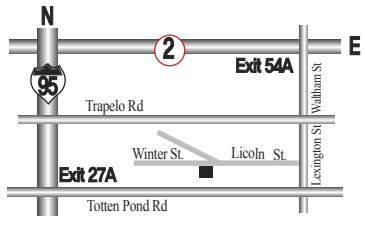
July 11th - July 2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Afternoon Session Mon–Fri

August 1st - August 1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Chemistry Preview	1:00 PM – 3:00 PM Monday,Wednesday,Friday
Biology Preview	4:00 PM – 6:00 PM Monday,Wednesday,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 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총영사, 한인 변호사회 초청 만찬 대화 나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한인 변호사회 회원들은 총영사 내외가 체스넛힐 소재 총영사관저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 변호사회의 활동 및 한인사회에 관한 폭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7월 28일 저녁 만찬에는 매사추세츠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 10명이 참가했다. 엄 총영사의 주재하에 회원들은 간단한 자기소개 변호사회 활동 내역 등이 논의 됐다.

특히 이날 만찬에서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이민 한인사회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교감했다. 또한 한인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경제인 단체를 건설하는데 변호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유학하는 한인 학생들도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학업과정 중 분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한인변호사회는 장우석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지난 2012년부터 꾸준한 만남을 가지면서 변호사들의 친목은 물론 한인사회 봉사활동 등을 함께 논의해 왔다.

변호사회 장우석 변호사는 "다양한 대학교 한인 학생회와 교류하기를 희망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아닌, 선후배 간의 만남을 추구합니다. 학생회에서 주체하는 오리엔테이션에도 참여하셔서 궁금한 사항들을 각 학교 학생회장들께 전달하시면, 이들과 우리 한인 변호사회가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참석자 좌측으로부터 죠슈아 리 스미스, 김연진, 김성군, 장우석, 엄성준 총영사님, 김수련 사모님, 정선진, 이진희, 성기주, 김수연, 김진선, 김만희 변호사

최인영씨 전통 12현 가야금 독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 매트로폴리탄 전통음악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약했던 최인영 씨가 8월 9일 저녁 6시 브루클라인 소재 세인트 폴스 에피스코펄 교회에서 가야금 독주회를 개최한다.

전통 및 현대 가야금 연주에 모두 정통한 최인영 씨는 〈자연의 소리〉라는 제하의 이번 가야금 독주 공연에서 전통의 12현 가야금을 연주한다.

가야금을 전공하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물놀이를 가르치고 있는 김경선 교사는 "이곳 보스톤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좋은 연주회" 라고 밝히고 "흔치 않는 기회이니 기회이니 시간내서 보러가세요" 라고 권장했다.

당초 이 연주회는 같은 시간 노스이스턴대학 펜웨이 센터에서 개최키로 했으나 학교측의 급작스런 통보로 인해 장소를 브루클라인으로 변경했다.

시간: 8월 9일 화요일 저녁 6시

장 소 : St Pauls Epicopal Church

15 Saint Pau Street,

Brookline, MA 02446

bostonkorean@hotmail.com

이현경보스턴홍보분과위원장, 김기철미주부의장, 이종국시카고총영사, 유호열수석부의장, 장수인보스턴부회장, 이재영여성분과위원

평통 세계 '여성 컨퍼런스' 시카고에서 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평통 사무처의 주최로 7월 28일부터 2박 3일 동안 시카고에서 개최된 제 1회 세계 여성컨퍼런스에 보스톤 대표로 장수인 부회장과 이재영 여성분과위원, 이현경 홍보간사가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본국 협의회에서 선발된 30여명과 전 세계 43개 지역협의회에서 각 2명씩 선발해 약 150여명의 여성 자문위원들이 참여했다. 그동안 여성자문위원 컨퍼런스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지역별로 실시되어 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장수인 부회장은 보스턴과 보스턴협의회을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했고, 이재영 여성분과위원은 탈북민을 돕는 기금마련 방법을 여러 지역 협의회 위원들과 토론하고 정보를 주고받았다.

보스턴협의회 이현경분과위원장은 이번 참석자 150명의 SNS을 열어 그룹카톡과 그룹밴드방을 만들어 컨퍼런스 이후도 활발하게 서로의 자료 공유와 통일사업 정보와 일정들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현경 분과 위원장은 4개 분임으로 나뉜 주제토론 중 〈여성이 이어주는 세대 간 통일 공감대 형성〉를 논의하는 3분임 발표자로 지목 받아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한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한미간의 협력할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달라" 고 주문했다. 또한 2세 통일 교육은 물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미국여성자문의 역할이 클것" 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김기철 미주부의장과 시문규 시카고협의회 회장이 연사로 나서 미주를 비롯한 해외평통 자문위원의 역할과 여성 위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평통 보스턴협의회 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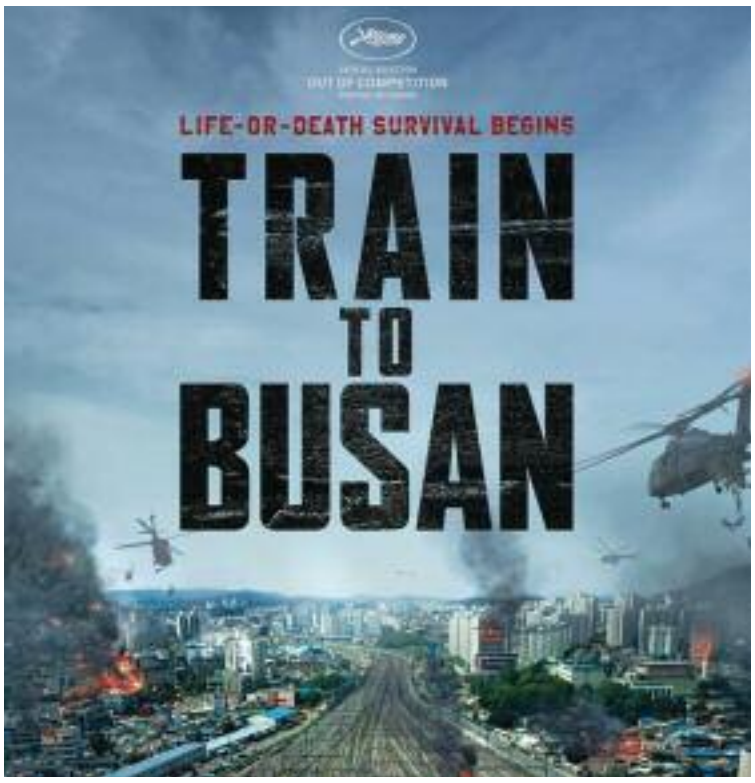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 보스톤협의회는 8월1일 렉싱톤 소재 다빈 레스토랑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지난해 평통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행사 및 안건을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6개의 부서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선우회장과 황우성간사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쉐라톤호텔 출범식, 신년 하례식, 오준 대사 강연, 청소년 안보비전 발표 대회 등의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평통 임원들은 향후 통일정책을 확산시키고 동포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통일기원걷기, 통일그림, 글짓기, 사진전, 플래쉬뵵, 탈북자 초청강연, 역사편찬 등 많은 안건들이 제시됐다.

bostonkorean@hotmail.com

민주평화통일 보스톤협의회는 8월1일 렉싱톤 소재 다빈 레스토랑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2주만에 900만돌파 〈부산행〉 보스톤 연장 상영

한국 영화사상 최대 흥행 신드롬 부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개봉 첫주 기록을 갈아 치웠던 재난 블록버스터 〈부산행〉이 900만 명을 돌파하며 '천만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또한 미주 흥행을 바탕으로 보스톤 상영이 1주 연장됐다.

한국의 주요 언론이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인용 3일(한국시간) 보도한 것에 따르면 '부산행'은 이달 2일 현재 누적 관객 수가 905만9천682명으로, 개봉 14일째 관객 900만 명을 넘어섰다.

'부산행'은 개봉일에 관객 87만2천236명을 동원해 역대 최대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각종 흥행 기록을 세우며 관객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새 강자로 부상한 '인천상륙작전'에 밀려 박스오피스 2위로 주춤했지만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올해 첫 '천만 관객 영화'에 등극할 것이란 평이다. '부산행'의 천만 관객 돌파에 가장 큰 위협은 이날 개봉한 '덕혜옹주'와 '수어사이드 스쿼드'다.

미주 배급사 측은 "북미에서 암살과 비슷한 흥행 수준이며 올해 흥행 돌풍을 일으킨 곡성보다 세 배는 빠른 흥행 스코어를 보이고 있다" 고 밝혔다.

AMC 로우스보스톤커먼 극장의 상영시간은 목요일 11:25, 2:10, 4:55 이며 금요일 및 토요일 상영시간은 오후 2:45, 5:40, 8:25, 11:10 이다. 일요일은 심야 상영시간이 없다.

hsb@bostonkorea.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광복절 한국의 날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8월 13일 토요일 저녁 로드아일랜드 워익 소재 바비핵킷극장(Bobby Hackett Theater)에서 광복절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한인회는 이날 광복절 기념식을 가진 후 뷔페로 마련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한국의 소리〉라는 주제로 국악 연주회를 갖는다. 이날 연주회에는 오정희, 강은주, 박은지, 서현수, 안제라 샤키 레베카, 김 그레이스 박 등이 참여한다.

조봉석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은 "올해는 광복절이 1979년에 한국의 날로 선포된 후 지난 5월 26일에 로드아일랜드 하원에서 다시 복원됐다. 이에 따라 두 행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더욱 더 의미가 깊다. 부디 참석하시어 한마음으로 자리를 같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햄프셔 한인회 광복절 기념식 및 체육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는 71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기념식 및 한인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한다.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뉴햄프셔 베드포드 소재 뉴햄프셔 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이날 광복절 행사는 기념식과 점심식사 후 배구대회 및 물풍선 게임, 태극기 만들기 게임들을 진행한다.

이날 영사관에서는 순회 영사 민원업무를 진행해 체육대회를 찾은 한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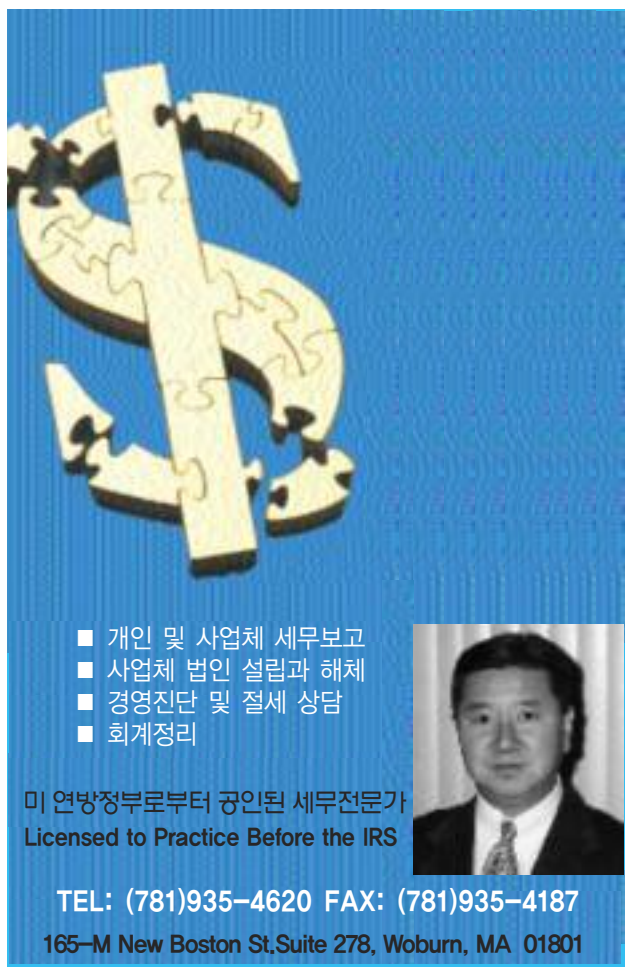
조은경 한인회장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순국하신 선조들의 숭고한 뜻과 그 날의 감격을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기리고자 한다. 이 뜻 깊은 날의 성공적인 기념행사와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각 교민단체장 및 동포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요청드린다" 고 밝혔다.

일시: 2016년8월13일(토요일) 오전11시

장소: 뉴 햄프셔 한인교회(NH Korean Christian Church)

12 Station Road, Bedford, NH 03110

bostonkorean@hotmail.com



[리우 올림픽] 10-10 노리는 한국대표팀 영광의 주인공은 누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리우올림픽 개막이 5일 오후 6시 개막을 시작으로 16일간의 대장정의 서막을 알린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지난 런던올림픽과 같은 목표인 금메달 10개, 종합 10위를 목표를 설정했다. 마린보이 박태환과 체조요정 손연재가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를 펼칠 가운데, 전통적인 강호종목 양궁과 사격, 배드민턴, 신흥강호로 올라선 펜싱, 그리고 112년만에 올림픽 종목으로 돌아온 골프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한국 대표팀의 첫 타자로 나서는 진종오의 남자 10m 공기 권총 결승은 6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 (사진 : 리오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제공)

〈축구 4일~20일〉

세계 최초 올림픽 본선 8회 연속진출의 쾌거를 이룬 축구대표팀은 2회연속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본선 C조에 속한 한국대표팀은 피지(4일 19시)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독일(7일 15시), 멕시코(10일 15시)와 예선전을 치른다.

〈양궁 5일~12일〉

대한민국 양궁은 84년 LA올림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금메달 19개를 휩쓴 세계 최강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전종목(남녀 개인, 남녀 단체) 석권을 목표로 삼았다.

〈유도 6일~12일〉

유도에서는 남자부와 여자부에서 각각 금메달 1개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남자부 세계랭킹 1위 곽동환과 여자부 2위 김잔디가 종주국 일본과 치열한 승부를 벌인다.

〈수영 6일~12일〉

약물파동으로 인해 리우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했었던 박태환은 마지막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대회에서 명예회복을 노린다는 각오다. 6일 첫경기 400m를 시작으로 7일 200m, 9일 100m, 12일 1500m에 도전한다.

〈사격 6일~14일〉

양궁과 더불어 한국팀의 효자 종목인 사격은 메달 5개(금 2, 은 2, 동 1)가 목표다. 세계 챔피언 진종오와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장미 등 17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빛 총성이 울려 퍼질 전망이다.

〈펜싱 6일~14일〉

런던올림픽에서 6개의 메달을 따내며 급성장한 한국팀은 올해도 남/녀 에페 단체전, 남자 개인 사브르 등에서 메달획득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런던올림픽 1초 오심의 피해자 신아람 선수가 눈물을 닦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골프 11일~20일〉

112년만에 올림픽 종목에 복귀한 골프는 여자부분에서 금메달 가능성이 높지만, 출전선수들이 올해 LPGA 시즌에서 대체로 부진했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LPGA에서 활약하는 박인비, 김세영, 전인지, 양희영 등이 첫 골프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드민턴 11일~20일〉

총 14명이 출전하는 배드민턴은 세계랭킹 1위인 남자 복식 이용대-유연성 조가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도 남녀 단식과 남녀 복식, 혼합복식 등 모든 종목에서 10위권 내 선수들이 포진하여 세계 최강의 자존심을 걸고 싸운다.

〈사이클 (여자 경륜 결승 13일)〉

전통적으로 사이클은 한국이 두각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었지만 세계랭킹 4위이자 2016년 폴란드 그랑프리 여자 경륜에서 금메달을 딴 이혜진은 이번 대회에서 기대를 모은다.

〈태권도 17일~20일〉

태권도 종주국 한국은 지난 런던대회에선 금메달과 은메달 각각 1개로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냈지만 올해는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한다. 대한체육회는 10개의 금메달 중 2개의 금메달이 태권도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듬체조 19일~21일〉

한국 리듬체조 간판 손연재는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겠다는 각오다. 2014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결선에 올랐던 손연재는 지난 3월 리스본 올림픽에서 개인종합 3위를 기록하여 이번 올림픽의 메달 획득에 자신감을 키웠다.

itshunne@bostonkorea.com

[리우 올림픽]

저마다 다른 스토리, 이 선수를 주목하라

신예, 세계정상, 명예회복, 유종의 미 각양각색의 스토리
우사인 볼트, 박태환, 손연재 은퇴 준비, 유종의 미 기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207개국의 11,239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올림픽에서는 다양한 선수들의 수 만큼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올림픽에 참가한다. 첫 올림픽에 가슴벅찬 선수와 세계정상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선수와, 명예회복을 노리는 선수와 은퇴를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선수들 등 이번 리우에서도 풍성한 이야기와 볼거리가 넘칠 듯하다.

리우올림픽에 도착해 훈련에 돌입한 손연재는 기자들을 좋은 컨디션으로 맞이했다

〈올림픽 첫 출전인 세계 1위 : 최미선〉

- 양궁 최미선 (20, 한국) : 컨디션 최고조, 세계가 주목한다

한국여자양궁은 그동안 끊임없이 세계여제로 군림해 왔다. 참가선수 모두가 금메달 후보지만, 그 중에서 최미선의 페이스는 가장 무섭다. 올해 5월과 6월에 열린 양궁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두 대회 연속 3관왕을 차지했다. 미국 언론 포브스도 올림픽에서 주목할 아시아 선수라는 기사에서 한국 선수중 유일하게 그를 꼽았다.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라! : 진종오〉

- 사격 진종오 (36, 한국) : 제임스 본드도 나를 못이겨

진종오는 올림픽 사격 116년 역사상 최초로 50m 권총 경기에서 2개대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다. 10m 공기권총 본선, 50m 공기권총 본선 및 결선부분 세계신기록을 보유 하고 있는 그는 이제 3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한다. 올림픽마다 한국팀의 최초의 금메달 소식을 알려왔던 그가 리우에서는 어떤 소식을 알려올지 기대 해 보자.

〈마지막 올림픽, 유종의 미 보일 것 : 박태환, 손연재〉

- 체조 손연재 (22, 한국) : 체조요정의 마지막 곱게 접어 나빌레라

김연아가 피겨를 개척했듯 손연재는 동구권이 독식한 리듬체조계를 개척해 왔다. 15살 때 세계 주니어대회 우승 뒤 그는 한국인 최초의 국제대회 우승,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 5위 입상등으로 최초의 타이틀을 이어왔다. 마지막 대회가 될 리우에서 그가 노리는 최초의 타이틀은 아시아 최초의 메달리스트다. 올 초 3개의 대회에서 입상해 전망도 밝다.

- 수영 박태환 (26, 한국) : 불명예 씻고 명예롭게 은퇴하겠다

마린보이 박태환은 박지성, 김연아와 더불어 21세기의 대표 스포츠 스타였다. 그러나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이후 여러 잡음에 시달려야 했다. 포상금 미지급 문제, 전용 훈련장 부재로 인한 연습문제, 최근에는 약물복용 파동때문에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판결 끝에 겨우 리우를 밟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라에 봉사할 기회" 로 삼겠다는 각오다.

itshunne@bostonkorea.com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IRS/DOR/UI
파산 보호 신용카드 채무조정
비지니스/리스 이민법
전화: (781)712-1708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지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기업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 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8월은 페스티벌의 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보스톤과 인근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페스티벌을 주목해보자.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면, 퇴근 후 잠시 들러서 즐길 수 있는 음악축제, 이태리, 캐리비언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열리는 축제 등 종류도 다양하다. 물론, 모두 무료행사다. 보스톤 매거진에서 소개한 30개의 무료이벤트 중, 보스톤 코리아에서 아직 소개되지 않았던 이벤트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세일럼 해양 페스티벌

매 해마다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서는 항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90분 동안의 유람선 여행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역사적인 배들에 관련된 투어를 통해 공부를 하거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좀 더 직접적인 참여를 원한다면 직접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세일럼 항구를 배로 노 저어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무료, 8월 5-7일, Salem Maritime National Historic Site, 160 Derby Street, nps.gov.

가스펠 페스티벌

올해 15주년을 맞이한 가스펠 페스티벌에서는 오픈 오디션을 통해 뽑은 새로운 얼굴과 잘 알려진 유명인들의 연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무료, 8월 7일, City Hall Plaza, Boston, boston.gov.

보스톤 커먼 공원의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책이 아닌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올 해의 프로그램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사랑의 헛수고(Love's Labor Lost)'다.

무료, 화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 일요일 오후 7시, 8월 7일까지, Parkman Bandstand, Boston Common, commshakes.org.

이자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 "Neighborhood Nights"

식물원을 주제로, 무알콜 음료와 꽃 장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게임과 갤러리 토크까지 다양한 즐길 것들이 미술관에 준비 될 예정이다. 라이브 음악도 있다.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음악가 셰아 로즈(Shea Rose)와 아프로 카리비안 재즈 싱어 알레아(Alea)가 함께한다.

무료, 8월 11일 오후 5-8시, 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 25 Evans Way, Boston, gardnermuseum.org.

보스톤 그린 페스티벌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환경적 음악 페스티벌"이라는 복잡한 이름의 축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환경패션쇼, 전기자동차 시험주행, 영화상영, 다양한 지역공동체의 예술품 전시가 이루어진다.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팁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무료, 8월 19-21일, Boston City Hall Plaza, Faneuil Hall, and Sam Adams Park, bostongreenfest.org.

웨스트 엔드 어린이 페스티벌

운동경기, 예술, 문화 공연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다.

무료, 8월 20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Thoreau Path in Boston's West End, www.westendchildrensfestival.org.

앤틱 & 클래식 보트 페스티벌

요트를 타고 세계를 항해하고 싶었던 꿈을 한 번이라도 꿨던 사람이라면, 이날 앤틱 & 클래식 보트 페스티벌에서 조금이라도 그 상상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벤트는 무료지만, 보트 구입에는 돈이 든다.

무료, 8월 20-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Brewer Hawthorne Cove Marina, 10 White St., Salem, boatfestival.org.

노스엔드에서 열리는 이탈리아 축제

캐리비안 카니발

8월 27일 날, 록스베리의 마틴루터킹 대로부터 도체스터의 크랭클린 파크 동물원까지 이어지는 길이 밝은 색감과 활기찬 댄서들의 퍼레이드로 물들어질 예정이다. 이는 캐리비안 미국 문화를 기념하는 것이다. 구경을 가게 된다면 함께 춤을 추게 될지도 모르니 편안한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이 좋다.

무료, 8월 2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Boston, cacab.org.

보스톤 재즈 축제

무료로 음악을 즐기기에 이만한 기회는 없다. 팻 브렉스톤(Pat Braxton), 에미 쳉(Emy Tseng), 러브섹시 밴드(LoveSexy Band), 브레들리 발렛 로셰(Bradley Bartlett-Roche), 그루바토스(The Groovatos)가 참여한다.

무료, 8월 27일 정오에 시작, Maritime Park, 600 D St., Boston, bostonjazzfest.org.

노스엔드 페스티벌

노스엔드의 다양한 곳에서 라이브 공연과 종교적 행사, 그리고 음악잔치가 열린다. 그 중에서도 피셔맨(Fisherman's) 세인트 앤토니(St. Anthony's), 산타 루치아(Santa Lucia), 세인트 아그리파(Saint Agrippina) 축제를 주목하자. 8월 중 열리는 각각의 축제에는 고유한 문화가 담겨져 있다.

무료, 8월 중, Boston's North End, northendbost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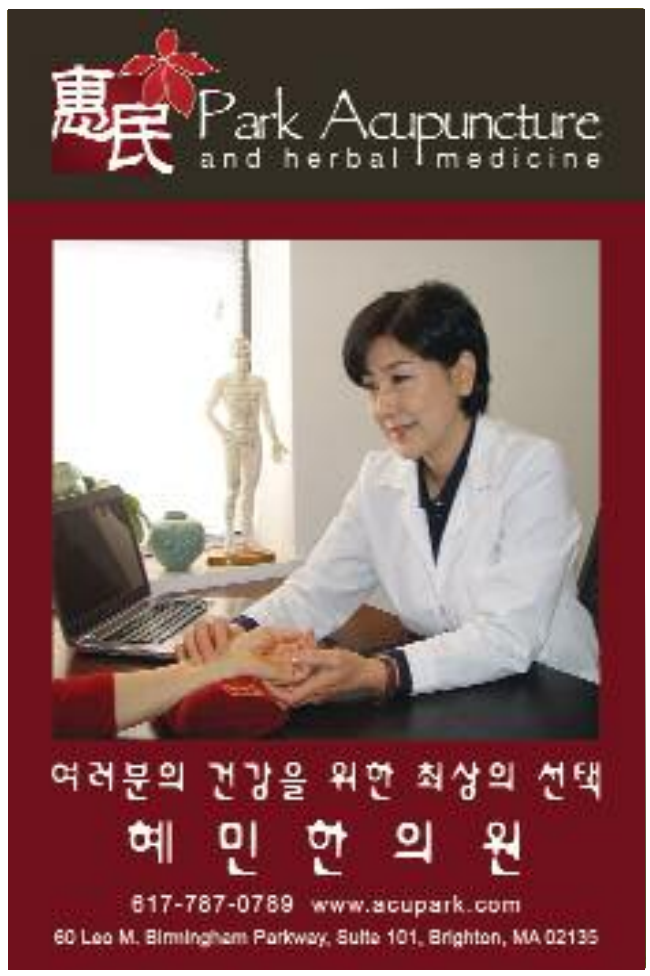
보스톤 컬링 블록 파티

매주 목요일, 퇴근하고 잠시 들린다면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도 모른다. 이번 라이브 음악 시리즈에는 스윙잉 존슨(Swinging Johnson's), 세일럼 울브스(Salem Wolves), SYM, 워크맨 송 (Workman Song)이 참여한다.

무료,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서 8시, 9월 15일까지, Dewey Square Parks, 185 Kneeland St., Boston, 617-292-0020.

sun@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MGH, 전국 병원 순위 3위로 추락

US NEWS 집계, 브리검도 13위 올라
어린이 병원 최고는 보스톤 어린이 병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시사전문지 US뉴스는 2일, 16년도 미국 내 병원 순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매요 클리닉(Mayo Clinic, 미네소타)이 전국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이하 MGH)과 브리검 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톱순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는 15개의 진료 과목을 통한 종합점수와, 9개의 개별수술에 대한 우수여부를 평가했다. 2012년과 2015년에 전국 종합 1위에 올랐던 MGH는 올해에는 종합점수 371점을 획득하여 전국 3위에 올랐다. MGH는 이비인후과, 정신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개별 진료과목 항목에서 전국 10위권에 올랐다. US뉴스는 평가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입증된 것이 고득점의 이유"라고 밝혔다.

작년 전국 종합 순위 9위였던 브리검은 올해 13위로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브리검은 15개의 진료과목 중 암치료 (4위)와 관절염치료 (5위)등에서 두각을 보이며 대부분의 과목이 전국 20위권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맥린 병원(McLean Hospital)과 어스텐 릭스 센터(Austen Riggs Center)가 정신과 부분에서 각각 2위와 9위에 올랐다. US뉴스는 매사추세츠는 정신과 치료에서 전국 최고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베이스테이트 메디컬 센터는 MGH와 브리검에 이어 주 내에서 세번째로 좋은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그 뒤를 베스 이스라엘 의료센터(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와 터프츠 메디컬 센터가 이었다. 주 내 1, 2, 3위를 차지한 세 병원은 전문수술 평가 전분야에서 우수평가(High Performing)를 받았으며, 베스 와 터프츠는 각각 5개(폐질환, 대장암, 심장우회, 심부전, 고관절)와 2개(폐질환, 심부전)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국에서 최우수 어린이 병원은 보스턴 어린이 병원(Boston Children's Hospital)으로 조사되었다. 보스톤 어린이 병원은 10개의 진료과목에서 당뇨(2위)와 호흡기(2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여 전국 최고의 어린이 전문 병원임을 과시했다.

US뉴스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순위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최고의 선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US뉴스는 "발표된 병원들은 전반적인 환경과 절차에 대해 평가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낮은 순위의 병원의 품질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님을 밝혔다.

〈US뉴스 조사대상 진료과목〉

암, 심장, 당뇨 및 내분비, 이비인후과,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노인병학, 신장병, 신경외과, 안과, 정신과, 호흡기내과, 재활학, 관절염, 비뇨기과

〈전문 수술 우수평가 대상〉

복부대동맥, 대동맥 판막, 폐질환, 대장암, 심장우회, 심부전, 고관절, 무릎, 폐암

itshunne@bostonkorea.com

엘리자베스 워렌,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에 등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해리포터의 팬이면서 매사추세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해리 포터에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반가울 것이다.

지난 7월 31일, 영국 작가 조앤 K.롤링의 해리 포터 시리즈 8번째 이야기를 담은 책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Harry Potter and the Cursed Child)'가 전 세계에 동시 출간됐다. 이 책은 해리 포터 책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제7권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의 19년 뒤 이야기를 다룬 연극의 대본이다.

마법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는 37세 해리 포터의 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해리 포터의 막내아들 알버스 포터가 마법학교에서 보내는 생활이 펼쳐진다. 해리 포터와 사이가 좋지 않던 드레이코 말포이의 아들인 스코피우스 말포이가 베스트 프랜드로 그려지는데, 이 둘이 함께 유령 모우닝 머틀을 만나는 장면에서 모우닝 머틀이 자신의 본명을: 머틀 엘리자베스 워렌(Myrtle Elizabeth Warren)이라고 밝힌다. "예쁜 이름이야 – 내 이름 – 울먹거릴 필요가 없지."

모우닝 머틀은 호그와트 여자 화장실에서 나타나는 안경을 낀 못생긴 여학생 모습의 유령이다. 안경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그녀가 살아있었을 때 이 때문에 끊임없이 놀림 받았다고 한다. 그녀를 놀렸던 올리브 혼비를 유령이 된 후 끊임없이 아 다녔으며, 올리브 혼비가 마법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화장실에서 지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해리 포터 책 시리즈 중 2권과 4권, 6권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캐릭터의 본명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5월 11일, 한 팬이 작가 롤링에게 트위터로 모우닝 머틀의 본명에 대해 물어봤을 때 롤링은 "엘리자베스 워랜 (Elisabeth Waren)"이라고 밝히며 곧바로 이는 상원의원 앨리자베스 워랜과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인바 있다.

sun@bostonkorea.com

작가 롤링은 트위터를 통해 모우닝 머틀의 본명이 머틀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밝혔다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 들을 명문 중/ 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바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동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MA주에서 가장 많이 도난 당하는 차량은?

2000연식 혼다 시빅이 작년에 가장 많이 도난
미국 전체에서는 1996 혼다 어코드가 도난 1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신 모델의 자동차보다는 연식이 오래된 차들이 차량 절도의 주된 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연방 보험 범죄국(NICB)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도난 당한 자동차 탑10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각 주 별 데이터 역시 포함하고 있다.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이 도난 당한 자동차는 1996 혼다 어코드로 2015년에 52,244건이 신고 되었다. 그 뒤로는 1998 혼다 시빅이 49,430번 절도의 대상이 되었다.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보안 시스템은 취약한 반면, 내구성이 좋다는 것이 증명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절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차들은 불법적으로 차량을 분해하여 부품을 비싼 값에 되파는 상인들에게 넘겨진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발생하는 차량 절도도 미국 전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혼다 시빅이 어코드보다 더 많이 도난 당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많이 도난 당한 자동차는 2000 혼다 시빅(426건)이며, 1997 어코드가 40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차 중에서는 쉐비의 2015모델 픽업 트럭이 매사추세츠 주에서 범죄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쉐비 픽업 트럭은 작년에 95건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다.

NICB의 조 웨를 국장은 "오래된 차들이 여전히 주된 범죄의 대상이지만 도난방지 시스템을 갖춘 최신 차량도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절도범들은 최선을 다해 도난방지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동시에 차량 제조회사들은 이런 절도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NICB는 차량 절도 보고서에서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안전 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차 문을 잠그고, 자동차 키는 차에서 내릴 때 지니고 다니는 등의 상식적인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웨를 국장은 "굉장히 자주, 운전자들은 차 문을 잠그지 않거나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린다. 차량 절도를 더욱 쉽게 하는 행동들이다"라고 덧붙였다.

jsi@bostonkorea.com

순위	차량 이름	연식	2015 절도 건수
10	Chevrolet Pickup	2015	95
9	Honda CR-V	1999	107
8	Jeep Cherokee	1999	143
7	Nissan Altima	2005	156
6	Ford Pickup	2004	178
5	Dodge Caravan	2005	188
4	Toyota Corolla	2010	203
3	Toyota Camry	2014	260
2	Honda Accord	1997	402
1	Honda Civic	2000	426

MA 주에서 가장 많이 도난 당한 자동차 탑10

포케몬고에서 배틀을 하기 위해서는 짐으로 지정된 곳에 실제로 가야 한다

데이케어 센터 안전 문제로 포케몬고에서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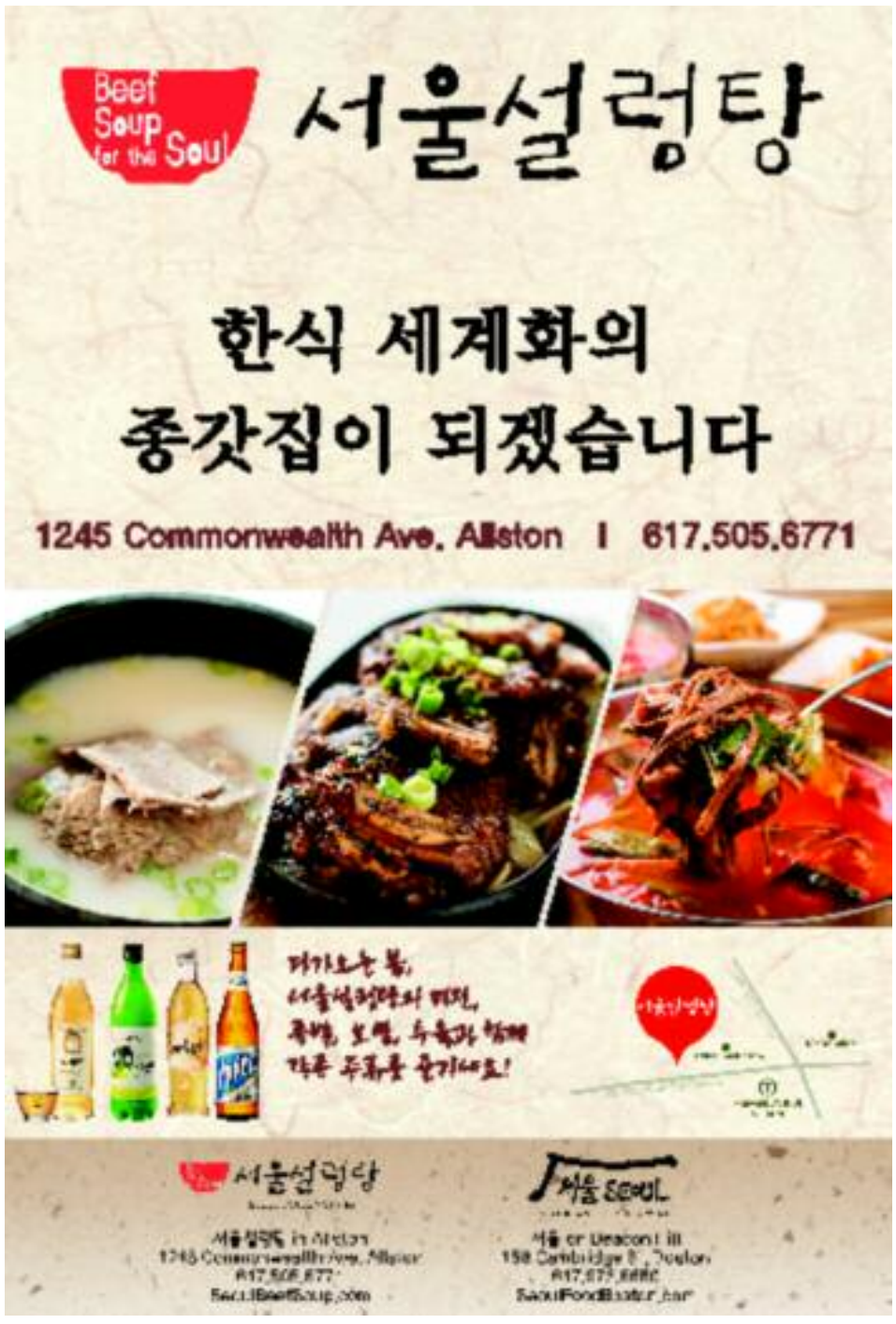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햄프셔에 위치한 데이케어 센터가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게임인 포케몬고(Pokemon Go) 때문에 반갑지 않은 일을 겪어야 했다. 결국 이 데이케어 센터는 게임 개발회사에 연락을 취한 뒤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5세 이하의 아이들 70여명을 돌보고 있는 리틀 블레싱 차일드 케어 센터에 지난달부터 낯선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비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 낯선 사람들이 데이케어 센터 주위를 배회하자 직원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데이케어 센터의 원장인 다이엔 루이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리틀 블레싱 차일드 케어 센터가 포케몬고 게임에서 짐(Gym)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 사람들이 데이케어 센터 주변을 돌아다녔던 것이다.

루이스 원장은 즉각 게임 개발사인 나이앤틱 랩스에 연락을 취했고, 2주만에 게임 내에서 데이케어 센터가 사라졌다. 루이스 원장은 "우리를 지워줘서 정말 기쁘다.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트럼프 막말 자멸에 클린턴 반사이익… '땡큐, 트럼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연일 막말과 함께 '자멸의 길'로 스스로를 재촉하면서 민주당 경쟁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꽃놀이패를 쥔 형국이다.

지난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와의 대결에서 클린턴이 유리하게끔 선거판을 편파적으로 관리한 의혹이 담긴 이메일이 유출되면서 클린턴 캠프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샌더스 지지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민주당내 자중지란이 불보듯 뻔한 사태까지 이르렀으나, 이 문제는 언론에서 곧 자취를 감췄다.

DNC 이메일 해킹 배후로 지목된 러시아를 트럼프가 두둔하면서 관심은 트럼프와 러시아의 유착 관계로 바뀌었다. 거기다 트럼프가 민주 전대에 연사로 참석한 무슬림 미군 전몰장병 유가족에 인종 · 종교적 차별 발언을 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트럼프 쪽으로 확실히 옮겨붙었다.

CNN은 이 같은 정치 판세를 "힐러리 클린턴은 뒤로 물러서서 공화당의 드라마가 격해지는 걸 감상하고 있다"고 평했다. 더그 헤에 전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에 위협적인 문제가 생길때마다 도널드 트럼프는 클린턴 캠프를 도와 그녀의 이야기가 보도되지 않겠끔 만든다"고 지적했다.

클린턴은 지지율에서도 상승세를 굳혔다. 폭스뉴스가 3일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49% 지지율로 트럼프와 10% 포인트까지 격차를 벌렸다. 이 조사에서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 중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달했다. 공화당 유권자의 민심이 악화된 것이 시각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심지어 오랜 시간 공화당에 자금줄을 데오던 멕 휘트먼 휴렛팩커드 최고경영자(CEO)는 2일 트럼프를 막기 위해 클린턴에 상당한 선거자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리처드 한나 미 연방 하원의원(뉴욕)은 공화당 의원으로선 처음으로 클린턴 후보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기세를 몰아, 클린턴은 공화당 유권자를 집중 공략하려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는 클린턴 캠프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공화당원 가운데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니터하고,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클린턴을 지원하는 최대 수퍼팩 단체 '미국을 위한 최우선 행동(Priorities USA Action)'은 앞으로 2억 달러(2228억원)의 선거 자금을 공화당원 및 무당파 지지자들을 공략하는 홍보 전략에 사용하기로 밝힌 상태다.

yjw@news1.kr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도널드 트럼프 공화 대통령후보

새로 구입한 보스톤 경찰의 아이스크림 순찰차

아이스크림도 무료로 주는 보스톤 경찰 트럭

보스톤 경찰 무료 아이스크림 트럭 새차로 변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경찰이 새로운 아이스크림 트럭을 구입해 8월 1일부터 패트롤 차량에 배치했다고 BPD뉴스가 밝혔다.

알록달록한 풍선과 보스톤 경찰 로고로 장식한 〈무료 아이스크림〉 트럭은 보스톤 경찰 본부가 위치한 락스베리 인근 지역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줄 예정이다.

보스톤 경찰은 어린이들과 보스톤 경찰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증진키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후지컵 작전(Operation Hoodsie Cup)〉이란 이름으로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2만여개의 아이스크림을 나눠줬다.

이번에 보스톤 경찰은 $89,000을 들여 대폭 업그레이드 된 아이스 크림 트럭을 구입했다.

마틴 월시 보스톤시장, 에반스 보스톤경찰서장 보스톤 경찰 재단의 딕 페리 등이 참여한 차량 소개 행사에서 에반스 서장은 "30년 전에 지역과 유대관계를 위해 아이스크림 트럭을 순찰 차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아마 미쳤다고 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과 어린이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 밝혔다.

한 경찰은 "이것은 아이스크림 이상의 것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친근함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고 밝혔다.

보스톤경찰 뉴스에 따르면 이번 아이스크림 트럭은 보스톤 경찰 재단이 구입했다. 아이스크림은 HP Hood 사에서 무료로 기부하고 있다.

hsb8@bostonkorea.com

'필승카드' 히스패닉 표심 파고드는 케인 "탁월한 선택"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다"(Somos Americanos todos), "우리는 할 수 있다"(Si se puede).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은 첫 등장부터 유창한 스페인어 실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드러내 보였다. 반(反)이민 발언을 일삼은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와는 상반되는 면모로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야심이 그의 눈에서 빛났다.

그렇다면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팀 케인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버지니아에서 온 중년 백인남성 케인 의원은 히스패닉 민주당 유권자들이 원하던 부통령 후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러닝메이트는 히스패닉계 토마스 페레즈 노동장관이었고, 그외 리안 카스트로 주택도시개발장관, 하비에르 베세라 상원의원(캘리포니아) 등 인사가 이들의 신임을 얻었다.

그러나 케인 의원의 과거 경력을 살펴본 이들은 마침내 그를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가장 잘 대변할 인물로 인정하게 됐다고 1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주지사를 지낸 케인의 능통한 스페인어 실력은 그와 히스패닉 유권자 사이의 가장 명백한 연결고리다. 그러나 정작 그의 스페인어 자체는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가 소수자, 이민개혁, 시민권 등 문제에 오래 천착해 온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토마스 페레즈 노동장관은 "케인은 라틴공동체와 함께 살고 또 함께 일했던 인물로,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나는 클린턴과 케인이 훌륭한 드림팀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라틴계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모임 '라티노 빅토리 프로젝트'(Latino Victory Project)의 필리 토바르 대변인은 "케인의 경력은 라틴계 시민들이 중시하는 진보적 의제들을 분명히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최저임금 인상,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라틴계 이민자 국외추방 보호 등을 꼬집었다.

토바르 대변인은 "케인이 스페인어로 말했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대변하는 정책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물론 케인 의원이 35년 전 온두라스에서 예수회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며 처음 스페인어를 배운 점은 그의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남기는 데 한몫하기도 했다.

마이애미 유권자인 마리아 스케처는 "(케인의 스페인어는) 악센트가 약간 강했다. 좀 더 속도를 늦추는 게 좋다"며 케인 의원의 스페인어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플로리다에서 그의 스페인어는 환영을 받는다"며 케인 의원에 대한 호감을 표했다.

히스패닉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집단이면서 동시에 가장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기울고 있는 집단이다. 2004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존 케리에 대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이미 53% 수준이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히스패닉 유권자는 71%의 압도적 수준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히스패닉은 플로리다, 네바다, 콜로라도 등 격전지 유권자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백악관행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멕시코인들을 '강간범'이라고 부르며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 접한 미국 국경에 장벽을 짓겠다고 말하며 반이민 정서를 전면에 드러낸 트럼프는 히스패닉 유권자에 고심하고 있다.

히스패닉계 여론조사기관 라티노 디시전스(Latino Decisions)가 지난달 18~22일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 이들의 비호감도는 78%에 달했으며 호감도는 겨우 20%에 그쳤다. 반면 클린턴에 대한 호감도는 62%로 높았으며, 가을 본선거에서 클린턴을 뽑겠다는 이들도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yeoulim@news1.kr

미국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이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 리치먼드에서 열린 캠페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에 있는 여성은 부인인 앤 홀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美 대다수 "트럼프 무슬림 전몰자 비판, 정도 벗어나"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10%포인트(p) 앞서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미국 폭스뉴스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9%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 39%보다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44%대 38%로 6%p 격차였다.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를 포함한 경우에도 클린턴은 44% 지지율로 트럼프(35%)를 9%p 격차로 앞섰으며, 존슨 후보는 12% 지지를 확보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두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발표된 뒤 실시된 첫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는 지난달 15일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뽑았으며, 클린턴은 그 일주일 뒤인 지난달 22일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을 러닝메이트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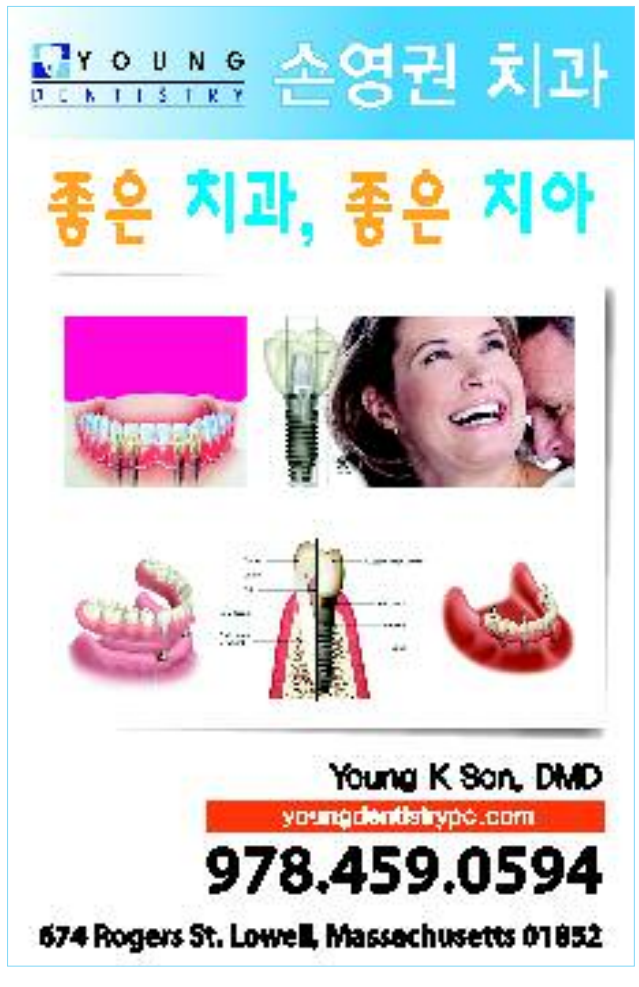
폭스뉴스는 지난 한달간 클린턴은 남성과 여성, 백인, 민주당, 청년, 노년 등 모든 집단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여성(57%대 34%), 흑인(87%대 4%), 히스패닉(68%대 20%), 30세 미만 청년(49%대 31%)층에서 트럼프에 비해 압도적인 호감도를 기록했다.

반면 트럼프는 백인(49%대 39%), 남성(45%대 40%)층에서 클린턴에 우위를 보였다.

한편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선정된 이래 공화당 내 이탈도 급증했다. 공화당 성향 유권자 중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2%로 민주당 성향 유권자 내 트럼프 지지자(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근 트럼프가 무슬림계 전몰자 아버지 키르즈 칸과 주고받은 논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중 69%는 칸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이 "정도를 벗어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yeoulim@news1.kr



맥도날드, 액상과당 · 방부제 뺀다 '탈정크' 이미지 모색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크 푸드' 대명사 미 맥도날드가 음식 재료를 대폭 수정해 이미지 혁신에 나섰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국 맥도날드는 1일 앞으로 햄버거빵에 액상과당 대신 설탕을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액상과당이 비만과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비자의 우려를 의식해 설탕을 대신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침 메뉴로는 인공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치킨 맥너겟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시되는 맥너겟에 쓰이는 닭은 생육 기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안드레스 맥도날드 미 사업부 대표는 이 같은 전면적인 변화는 메뉴의 50%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했다.

맥도날드가 메뉴에 변화를 꾀한 것은 최근 미국 외식업계에 불어닥친 이른바 '클린 레이블 운동(clean-label movement)'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클린 레이블 운동은 재료를 최대한 적게 사용한 식료품을 선호하고 구매하는 움직임이다.

이에 맞춰 식료품 제조사들은 재료를 간소화해 재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멕시칸 패스트푸드 타코벨과 KFC 모기업 얌브랜드도 최근 추세에 맞게 소비자가 우려할만한 재료를 아예 쓰지 않는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 해 맥도날드는 에그 맥머핀 재료로 액상 마가린 대신 버터를 선택하기도 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액상 마가린의 성분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전 세계 최대 체인망을 갖춘 맥도날드가 재료를 변화하면서 외부에 긍정적 변화를 미치기도 했다.

마크 칼리노스키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지난 해 맥도날드가 전 제품에 들어가는 달걀을 자연방사(Cage-free)란으로 교체하면서 대량의 레스토랑들이 맥도날드를 따라 자연방사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yjw@news1.kr

아마존, 美 시가총액 4위…엑손모빌 · 페이스북 넘었다

2Q 실적에 힘입어 2거래일 만에 3단계 상승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석유회사 엑손모빌을 제치고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4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아마존은 2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7위에서 4위로 세 단계 상승했다. 지난달 28일 아마존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29일 아마존은 버크셔해서웨이와 페이스북을 제쳤다.

1일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아마존 주가는 1.18% 올라, 시가총액은 3640억달러(약 403조원)을 기록했다.

페이스북은 5위를 유지했다. 에너지기업 엑손모빌은 6위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는 7위로 밀렸다.

미국 증시에서 1위부터 5위 기업까지 모두 기술 기업이 차지하게 됐다. 시가총액 1위는 애플(5714억달러), 2위는 알파벳(5495억달러),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4409억달러)다.

hemingway@news1.kr

미 텍사스주가 이달부터 공립대 총기 반입을 공식 허용했다

텍사스 공립대 총기반입 첫 시행… 권총 휴대도 가능

1일은 텍사스대 총격사건 50주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 텍사스주가 1일부터 공립대 총기 반입을 공식 허용하게 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텍사스주 공립대학에서는 이날부터 무기 반입뿐만 아니라 옷 속에 지니는 권총과 같은 '숨긴 무기'(concealed weapon)도 대학내 휴대를 허용하게 됐다.

텍사스 공립대학 내 무기반입은 지난해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 8월 효력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 이날은 1966년 텍사스대에서 총격 사건으로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50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캠퍼스 총장 그레그 펜비스는 50년 전 사건은 "별개의 일"이라면서 날짜는 순전히 우연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폭스뉴스는 "주정부가 총격 희생자들에게 새로운 방법의 추모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법안의 효력이 발생했지만 총기반입 허용에 대해 대학 내에선 여전히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교수 3명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학생들의 총기반입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교수들의 말할 권리가 제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주 댈러스대학 교수 시마 야스민은 지역 일간 댈러스모닝뉴스 기고에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정신병, 그리고 대학내 총기 반입이 모두 합쳐져 일어날 일이 두렵다"고 전했다.

반면 찬성 측은 학내 총기 반입은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학생들과 교수들의 안전을 더 신속하게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yjw@news1.kr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회

고문: 조 형 구

웹사이트 :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KUKKIWON
USA TAEKWONDO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 개인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보스톤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bostonkorean@hotmail.com

JESSICA BEAUTY
한국종합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주름개선,탄력개선,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샵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연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성주 사드 '제3의 지역' 검토한다면 어디?…실현가능성 '미지수'

국방부는 이미 제3의 지역 부적절 결론 밝힌 상황
현실 가능성 미지수…제3지역 난공사 불가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 THAAD)의 경북 성주 배치를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성주 내 제3의 후보지가 급부상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새누리당 소속 TK(대구 · 경북) 지역 의원들과의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군 내에 다른 적합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해 배치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이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결론내린 곳은 해발 383m의 성주 성산 정상에 있는 공군 호크미사일 포대다.

한미 양측은 추가로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성산포대를 사드 최적지로 낙점했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이 성주 내에서 사드를 배치할 다른 지역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3의 부지가 급속도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사드 배치 등을 놓고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최대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사드를 멀리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성산포대는 성주읍으로부터 1.5㎞가량 떨어져 있다.

국방부도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뒤 곧바로 성주군의 요청이 있다면 제3의 부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3의 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금수면의 염속산과 수륜면의 까치산 등이다. 이 지역은 이미 제3의 부지로 거론된 지역으로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대안으로 거론한 곳이다.

거론되는 지역은 해발 383m의 성산포대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염속산은 해발 872.5m이고, 까치산은 해발 571m로 성산포대보다 전자파 위험 등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안을 제시하는 이들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미군의 통신기지가 위치해 있는 해발 976m의 구미 금오산도 제기된다.

다만, 제3의 부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제3의 부지로 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미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드의 내년 말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염속산의 경우 정상 부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봉우리도 대부분 깎아야 하는 등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하다.

까치산 역시 사유지 매입과 진입로 확장 등 공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미 국방부는 제3의 부지에 대해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었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 내 제3의 지역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며 부지를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수차례 밝혔다.

사실상 염속산 등에 대해 가용성 검토를 한 결과,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 부지가 최종적으로 바뀔 경우 국방부가 스스로 밝힌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sanghwi@news1.kr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사드배치 반대 기자회견에서 성주 유림단체의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결은)

617-981-1542
UniJoo (주 순희)

508-641-8924

LEXINGTON ....$ 2,985,000

WAYLAND ....$ 1,825,000
보스톤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AUG. 5 - AUG. 11, 2016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KIMCHI EVERYDAY TOP 5. OUR GREATEST HITS EVER.

Guess our top 5 mouth-watering recipe videos in the first half-year!
2016년 김치 에브리데이 상반기 결산! H마트가 자랑하는 최고의 레시피 TOP5를 만나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Kimchi EVERYDAY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os/inaccurate.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 40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8am - 9pm / Fri - Sat: 8am - 10pm

박 대통령 "사드, 성주 내 다른 지역 배치도 검토"

"성주군내 적지 있는지 조사…결과 소상히 알릴 것"
"K2 · 대구공항 이전, 대구경북 시너지 내도록 개발"

(서울=뉴스1) 최종무, 곽선미, 서송희, 김정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것과 관련 "입지로 확정된 성산(포대) 말고 성주군 내 다른 적합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TK(대구 · 경북) 초선의원들과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다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박 대통령에게 성주 군민들이 사드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드가 성주군의 중심을 관통한다는 점을 군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대통령은 "성주 군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성주군 내 좀 더 적지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를 성주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사드가 안전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의 도발과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자파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괌에서 실험을 했는데 영향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의 최후 보루인 대구, 경북이 다같이 노력할 수 있게 해달라"며 "단결하고 화합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신공항 무산 및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른 참석자는 "신공항이 '기부 대양여'로 가면 너무 옹색하니 되도록 반듯한 공항을 만들게 해달라"고 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반듯한 공항이 되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K2 공군기지를 대구공항과 통합 이전하는 것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이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개발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드론 · 자율주행 차량이 대구에서 활성화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김영란법으로 농촌이 어려움이 있다"며 "동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해달라"고 했다.

gsm@news1.kr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국방부 "성주군이 다른 부지 가용성 요청하면 검토"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방부는 4일 "해당 지방자치단체(경북 성주)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THAAD) 배치 부지의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군 내에 다른 지역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소속 TK(대구 · 경북)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군 내에 성산(포대) 말고 다른 적합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해 배치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그동안 부지 가용성 평가 결과 애초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가 최적지이며 다른 부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가능성, 비용, 공사기간,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성산포대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최적의 적합지로 판단한 부지로 변함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flyhighrom@news1.kr

朴대통령 "아프게 부모님 잃고"…사드 분열에 '감성 호소'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사드 · THAAD) 배치 논란에 대해 아픈 가족사를 언급하는 등 국민 감성에 호소하며 국가안보에 대한 국론 결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아가 국민을,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이제 남은 소명은 국민안위…" "대한민국은 국민여러분과 다음세대의 것" 등 안타까움을 쏟아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1년 반 남은 임기 동안 국가 · 국민 안전을 자신의 유일한 소명으로 인식하고, 북핵 · 미사일 위협이 없는 국내외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 탑재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국론분열이 이어지는 '안보불감증'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엔 국내 일부 인사들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싣는 등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이 정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데 사드 배치와 같은 기초적인 방어 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나.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과 다음 세대의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사드 분열'의 진원지인 정치권에 대해선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막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 단체장 ·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며 "또한 각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일부 대구 · 경북(TK) 지역 의원들의 면담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TK의원들의 면담 신청에 대해 "아직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입증이 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최근의 '안보분열'이 괴담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birakoca@news1.kr

2野 "朴대통령 '사드 입지 재검토' 발언, 졸속배치 자인"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최종무, 서미선,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 대구 · 경북 지역 초 · 재선 의원 11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입지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사드의 졸속배치를 자인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가 사드의 '최적지'라며 수차례 강조했는데, 입장을 바꾸려면 그에 상응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왜 바꿨느냐. 대통령의 '입장 번복'은 사드 입지 결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면서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대통령 스스로 야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향해 "또 한 번 국정 혼란, 국민 분열을 초래하려 하시느냐"고 반문한 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과 성주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그리고 성주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소통과 협치의 실현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제와 성주군내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그간 최적지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라며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는 성주군민이 많이 살고 있는 읍단위 지역의 사드배치 발표가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면단위 지역으로 철수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우롱이자 일구이언"이라면서 "이는 성주군내 갈등을 조장하고, '읍과 면', '면과 면'의 싸움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사드배치를 요청한 미군의 말만 듣고 국민의 원성을 외면한 채 강행을 결정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최적지가 아닌 곳으로 옮기겠다고 나선다면 돌아올 미군의 원성은 어떻게 잠재울 요량인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배치에 적합한 장소는 없다. 정부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016~'17학년도 가을학기 등록부 *

www.ksneusa.org (1975~2017 개교 42주년)

◈ 가을학기 일정 : 2016년 9월 17일~2017년 1월 21일 (설날잔치 및 종강식)
* 1차 신입생 소집: 오리엔테이션 및 반 편성- 9월 10일(토) 오후 2시(강당)
* 2차 신입생 소집: 오리엔테이션 및 반 편성- 9월 17일(토) 오전 8시 반(강당)
◈ 과정 안내: 기초~고급과정(22반) 이중언어 과정(7) 성인반(3) 특별교육(16)
☞ 병아리(2-3세) 기초1(해님 & 달님반), 봄반(이중언어과정-1)→선착순 등록
◈ 학교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C/o Oak Hill Middle School)
◈ 등록기간: 재학생은 8월 7일까지 * 신입생은 8월 31일까지 등록 마감
◈ 오전 및 오후 프로그램 수업 과목 안내 :
(1) 오전반: 9:30am–12:40pm 한국어, 한국역사, 연극, 음악교육(1~3반), 작문교육(1~3반), 서예, 한국무용,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교육 및 기타
(2) 오후반: 12:45pm-1:45pm : 미술(1-2반), 발레반, 태권도반, 사물놀이팀 펜싱팀, 서예반, 중국어(기초), 오케스트라/앙상블(8:30-9:20 인원제한)
◈ 수업료(오전 & 오후 프로그램) ◆ 마감일 이후 등록시: Late Fee $20
(1) 오전: $330/1명 *$590/2 *$740/3 (2) 오후반: $120/1 (3)병아리반:$150
(2) 자녀가 이중언어반에 등록하고 부모가 성인반 등록 : 50% 할인
(3) 자녀 2인 이상 등록 시에는 3회까지 등록금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금 수표는 Korean School of New England로 작성해 주십시오.
▶ 등록금 보내실 주소: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Il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Homepage : www.ksneusa.org
♣ 연락처: 남 일 교장: (508) 523-5389(C), (508) 842-1551(F)
♣ Email: ksneusa@verizon.net / koreanschool.ne@gmail.com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함께 수고하실 교사를 모십니다 !
2세들의 한글• 한국역사• 음악 • 미술교육 등 2세 교육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교사/보조교사로 함께 2세 교육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은 위 연락처로 알려주십시오.
* 교사 모집부문: 한글, 문화, 역사 및 오후 특별활동 부문/
*교사 자녀 장학금 및 기타 교사회 각종 지원

◀ 등 록 부 (Registration Form) ▶

(2016 봄학기 재학생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면 *표시된 부분만 기록합니다)

*한글이름:(1)_____ (2)_____ (3)_____
영문이름_____
생년월일(년월일): _____ 성별 : 남(Male) ____ 여 (Female) ____
출생지(Birth Place): _____ *학년(2016년 봄): _____반
부모/보호자 성명: 한글_____ 영문: _____
집주소: _____
Email: _____
* Cell: _____ 집전화:_____
*비상연락(성명): _____ 전화: _____

◀ 신입생만 기록(New Students Only): 한글실력(Korean Level): 가능한 자세히 ▶
★ 말하기 (Speaking): _____
★ 듣기 (Listening): _____
★ 읽기 (Reading) : _____
★ 쓰기 (Writing) : _____

오전반 수업료 $_____ $330/1, $590/2, $740/3명 (병아리반: $150)
오후반 수업료 $_____ (1st Choice:_____반)
(2nd Choice:_____반)
기부금: $_____ (Tax Deductible)
총 액: $_____(마감일 이후 Late Fee $20)

♡ 학부모님 및 후원자 여러분의 기부(Donation)를 부탁드립니다 ♡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연방 및 주정부에 비영리단체(Non-Profit Org.)로 등록되어 있어 기부금의 세금 공제 혜택(Tax Deduction Benef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6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반 편성: 9월 10일(금) 오후 2시 & 9월 17일(토) 오전 8시 반→ 학교 강당 ★

中 '사드 보복', 전형적인 '저강도 괴롭힘'…고강도로 확대될까

골탕 한번 먹어보라는 심보..."고강도 충격 대비해야"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한류 콘텐츠 제재 움직임, 중국 상용비자 발급 요건 강화, 인민일보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실명비판…'

최근 중국이 한국에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한반도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이후 일종의 '저강도 보복 내지 괴롭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보다 문화와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에서 낮은 수준의 압박 조치들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하겠다는 전략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3일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현재 반도(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의 지도자는 소탐대실로 자국이 가장 먼저 공격받을 대상이 되도록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 이례적으로 상대국 정상에 대한 실명을 거론, 경고 메시지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를 꾀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또 최근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보여 중국시장 진출이 활발한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 광전총국은 지난달 위성방송국을 대상으로 해외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방영 횟수를 제한하고 황금시간대에는 중국 자체 프로그램 방영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직접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자체 프로그램 방영을 지시한 게 곧 '한류 콘텐츠 제재'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중국을 오가는 상용비자 발급과 관련해서도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 접수를 거부한 건 아니지만, 대행업체 자격을 취소해 종전보다 발급 과정을 까다롭게 한 것도 중국 중앙당국의 '저강도 괴롭힘'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측이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골탕 한번 먹어보라는 심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통관을 거부하고 필리핀에 체류중인 중국인 관광객 철수 지시를 내리는 강공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필리핀처럼 고강도의 제재는 아니지만, 중국 측이 얼마든지 이같은 조치를 한국에도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 중국 전문가는 "사드와 관련돼 명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중국이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향후 제기될 한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이 취하는 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종의 '저강도 불만표시'라는 것이다.

또다른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우리에게 '다음에 또 그러면 재미없다'는 식의 '학습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외교부 등이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경제 제재나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모욕주기'로 한발 더 나갈 수도 있다"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 등을 중심으로 미리 확실한 액션 플랜이 서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argus@news1.kr

지난달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린 '2016 대구치맥페스티벌'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참석해 치킨과 맥주를 시식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드보복' 中 한류 제재? 외교부 "상황, 예의주시중"

中정부 지침 없어도 피해 가능성…"정부도 플랜B 마련해야"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한반도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이 한류 콘텐츠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일련의 보도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4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직 중국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아닌 만큼, 우리 측 대응도 섣불리 할 게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중국 현지 언론들은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국제적인 요인'을 이유로 향후 일정 기간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활동을 규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국제적인 요인'은 한반도 사드배치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업계의 주가가 한때 곤두박질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이같은 현지보도를 입증할 수 있는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광전총국은 지난달 위성방송국을 대상으로 해외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방영 횟수를 제한하고 황금시간대에는 중국 자체 프로그램 방영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있을 중국 측의 한류 콘텐츠 제재 가능성에 대해 관련 업계는 현장 분위기를 챙기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모기업의 특정 연예인의 중국 공연이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연기됐다는 소문이 업계발로 확산되는 등 엔터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미 최근 수년간 중국 내 '한류' 열풍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국의 제재가 현실화되면 상당한 수준의 타격이 예상된다.

'런닝맨' 중국판인 '달려라 형제', 중국 대표 예능인 '쾌락대본영' 등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방송프로그램에서 주요 게스트로 출연하는 일이 잦고, 한국 내 여러 프로그램이 중국으로 수출됐거나 중국 내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제재가 나온 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내 한류 행사가 중국 정부의 공식 지침에 의해 취소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다만 중국 측 일부 개별 행정단위에서 알아서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실제로 '사드'와 관련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도 '플랜B'와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argus@news1.kr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후원하는 한류스타와 패션뷰티가 결합한종합공연 'Very Korean!'(베리 코리언)이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 BIFT PARK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中 인민일보 박 대통령 실명 거론… 사드 배치 강력 비판

黨기관지, 朴대통령 콕 집어 으름장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3일 칼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 이익을 파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의 진정한 의도는 한반도 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구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한국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드 배치는 오히려 한국을 미국과 중국 · 러시아간 군사 대치에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충돌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최초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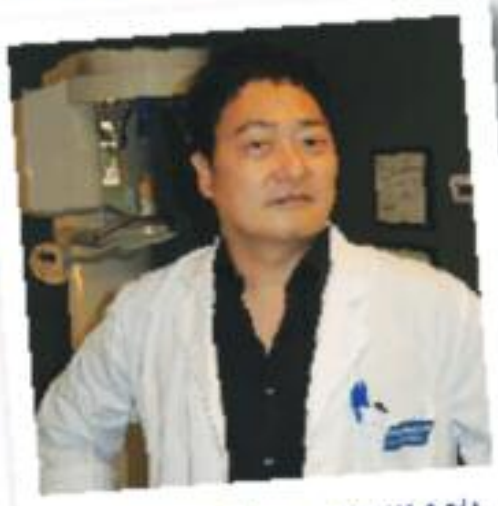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 안보에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을 끼치며 중국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chung@news1.kr

사드 포기 압박한 인민일보의 칼럼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현과 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e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종 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요
(프리스페어 소라 화장품 內 위치)

발톱, 교정치 젤,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트리트먼트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A GIFT FOR YOU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주름방지,
혈액순환, 면역, 등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의 탄력을 보충하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실리콘 고무 인공눈
전문제작이로 유명
홍은희

Mon-Sat: 9:30AM-7:30PM
Sun: Closed
617.515.6010 |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교육부 일방통행에 '경종'…'이화여대 사태'의 교훈

"정부재정지원 사업 돌아보는 계기"
"본부-학생 간 협의 과정 강화될 것"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이화여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계획이 철회됐다. 학교 특성을 무시한 채 돈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하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자성의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이화여대 사태는 대학 구성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교육부 정책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3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화여대 사태를 두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프라임) · '인문역량강화 사업'(CORE, 코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불러온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등 이른바 재정지원사업 3종 세트에 쌓인 구성원들의 곪고 곪은 불만이 결국 터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 일환으로 진행하는 3개 사업은 프라임 6000억원, 코어 450억원, 평생교육단과대학 300억원 등 지원금을 모두 합쳐 총 6800억원에 달한다. 그야말로 대학입장에서는 군침을 흘릴 수 밖에 없는 '당근'인 셈이다.

하지만 정원 조정이나 폐과, 학과 신설 등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학 구조를 개편해야 해 학생들의 반발도 극심했다. 또 각종 지표를 들이대 대학을 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을 정부 입맛에 맞추려 한다"는 회의적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이화여대는 이번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이전에도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총학생회를 비롯한 재학생들은 집회와 기자회견 등으로 꾸준히 불만을 표출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일방적인 교육부 정책과 이를 따르는 대학본부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례로 바라봤다. 구성원들이 교육부를 따르는 대학의 결정을 뒤엎은 첫 사례인 만큼 전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내 주체들이 대학구조조정에 저항한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대다수 대학이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굴종'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 교수는 "대학의 근본적 가치는 '자치'고 사회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면서 "대학구조조정 등으로 대학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억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정 여건이 풍족한 이화여대 같은 대형 대학이 아닌 소규모 대학이나 지방대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의 행동으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철회를 이끌어낸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사업 방식에 '경고'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화여대의 경우 뇌관(불만)이 터진 것은 평생교육 단과대학이지만, 지난해부터 프라임과 코어 등 교육부 사업을 학생들과 논의없이 밀어붙인 학교에 계속해서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그의 말처럼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은 이를 따내려는 대학의 욕심이 맞물려 학내 구성원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평가 지표로 대학본부와 학내 구성원 간의 합의 과정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이화여대 사례로 보는 것처럼 일종의 요식 행위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이수연 연구원은 "사태는 이대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 사업 방향은 그간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됐다"면서 "당장 학사제도를 바꾸거나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등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 대한 경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희강 홍익대 미술대학 학생회장도 "앞으로는 대학본부가 (재정지원 사업 지원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협의를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사태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교육을 통제하는 수단은 오직 돈이다. 재정지원을 미끼로 정원을 강제로 조정하고,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틀어막고, 인문대를 죽이고 있다"면서 "현행 방식의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jhlee26@news1.kr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3일 학교 본관 농성 현장을 찾아 미래라이프대학(평생교육 단과대) 설립 철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이대 학생들 "총장, 경찰 탄압 · 사업 강행 책임져야"

"총장 사퇴 시 즉시 본관점거 해제"
학교 "입장 정리 중…적극 대화할 것"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부업 TV광고와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 3+1법'을 패키지 형태로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 상 대부업 TV광고는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한해서만 방송이 제한되고 있으나 제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광고방송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금년 상반기 광고횟수는 전년 대비 36%정도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1일 평균 광고횟수는 757건 꼴로 TV를 켜면 대출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 의원은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여성을 타깃으로 한 광고를 남발했고 그 결과 여성대출 거래자수는 전체 대출건수의 50.7%로 절반을 넘어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의 대출상품 TV광고방송도 전면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또 제 의원은 대부업체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제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자율규제 형식으로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 전화 보증 의사 확인만으로 보증 책임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제 의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과 악의적 채권추심"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의정활동의 중심으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취지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jhlee26@news1.kr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3일 학교 본관 농성 현장을 찾아 미래라이프대학(평생교육 단과대) 설립 철회 결정과 관련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한 뒤 굳은 얼굴로 자리를 뜨고 있다

경찰, 이대 농성 학생 '감금' 혐의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에 반대해 시작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성 참가 학생들의 '감금'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8일 열린 평의원회에 참석한 뒤 30일까지 46시간가량 본관 건물에 갇혀있다 경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교직원 5명 중 일부가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받은 인원 중 일부가 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면서 지난 30일 진압과정에서 확보한 채증자료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참가학생들의 신원과 주동자 유무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감금죄로 신고가 들어온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학생들이 주동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 착수 보도를 접한 학생들은 "총장이 농성에 참가한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공문은 거짓말이었다"며 "언론 앞에서 학생을 기만하고 약속 번복하는 총장을 신뢰할 수 없어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지난 30일 서울 이화여대 본관에 진입한 경찰과 농성중이던 학생들이 대립하고 있다

All You Can Eat!
맛있는 배부름~~

무제한 BBQ 스페셜

SURA BBQ Boston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COURSE "A" $25.95

불고기/차돌박기/치킨 테리야끼/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등심/돼지 불고기/곱창구이/돈까스,치킨까스
야채/파전/순두부찌게/된장찌게/계란찜/공기밥/만두 튀김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등심구이/흑돼지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쭈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혀밑구이
오삼불고기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차돌박이/대패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끼/불닭/모듬 야채구이/순두부찌게
된장찌게/계란찜/공기밥/파전

영업 시간
일~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푸짐하고 맛있는
수라 BBQ와 함께
소주 한잔 어때요?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40-50인)

SURA BBQ Boston
수라 보스톤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781.391.5606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안녕하세요?

그동안 보스톤 뉴스타 부동산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 경제계의 대부인 웨렌 버펫이
소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Berkshire Hathaway)와
새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폭 넓은 정보와
질 높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게 됨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의 새 얼굴인 버크셔 해서웨이
뉴잉글랜드 프라임은
매사츄셋스와 로드아일랜드에만도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미 전역에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일하실
큰 꿈을 키우고 계신
에이젼트 선생님을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ichael Yoon
617.459.5985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보스톤 뉴스타가 버크셔 해서웨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Steve Son
617.290.0623

이제봉
781.654.5281

Shell Yu
781.526.2416

Sara You
617.899.3566

OFFICE LOCATIONS

OT Kim
617.620.8242

애나 정
617.780.1675

Gina Choi
978.866.3248

Sue Rong Tsai
617.792.8842

Good to know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패트리어츠 2016시즌 포지션별 전력 분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시즌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수퍼볼 진출이 눈 앞에서 좌절되었다. 단지 몇 번의 플레이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패트리어츠는 수퍼볼에 진출할 수도 있었다.

올해 패트리어츠는 주전 쿼터백인 탐 브래디의 4경기 출장 정지라는 큰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공수 양면에서 패트리어츠는 재능 있는 선수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퍼볼에 대한 희망이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다. 시즌 개막까지 한 달여가 남은 상황에서 패트리어츠의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자.

쿼터백: NFL 2위

패트리어츠 팬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가 지미 거라폴로를 주목하고 있다. 프로 3년차인 거라폴로는 올해 드디어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한 템포 빠른 패스를 바탕으로 한 패트리어츠의 공격 전술을 거라폴로가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브래디는 여전히 녹슬지 않은 오른쪽 팔로 패트리어츠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이미 리그 최고령에 속하는 브래디는 지난 시즌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브래디의 패스를 받을 선수들이 부상 없이 건재하다면 브래디는 17년째가 되는 올해 시즌에서도 패트리어츠를 정상의 자리에 올려 놓을 수 있다.

러닝백: NFL 14위

지난 시즌 9주차 경기에서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기 전까지 디온 루이스는 프로 경력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었다. 루이스는 빠른 몸놀림을 이용한 방향 전환 능력으로 상대 수비수의 태클을 무력화 시키며 패트리어츠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루이스가 정상 컨디션으로 복귀한다면 러닝과 패싱 공격에서 모두 패트리어츠의 공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리시버: NFL 1위

패트리어츠의 리시버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패트리어츠에는 리그에서 수비하기 가장 까다로운 리시버 랍 그롱코스키가 있다. 그롱코스키는 거의 모든 포메이션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 수비수가 예측하고 수비를 하기가 어렵다. 특히 그롱코스키가 블로킹이 아닌 리시빙 역할을 할 경우 1:1로 힘과 스피드를 동시에 따라갈 수 있는 수비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또 다른 타이트 엔드 마텔러스 베넷이 패트리어츠에 가세했고, 기존의 줄리언 에들먼, 대니 아멘돌라가 있기 때문에 패트리어츠의 리시버 조합은 리그 최고 수준이다.

오펜시브 라인: NFL 18위

패트리어츠 팬들에게 남아 있는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가장 마지막 기억은 지난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종이처럼 구겨졌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패트리어츠의 오펜시브 라인은 작년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레프트 태클 네이트 솔더가 복귀하고, 이에 따라 세 바스찬 볼머도 원래 자기 포지션인 라이트 태클로 돌아간다. 이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 부상을 겪었던 선수들이다.

디펜시브 라인: NFL 11위

디플릿게이트를 제외한다면, 올해 오프시즌 패트리어츠 최고의 뉴스는 챈들러 존스를 카디널스로 트레이드 한 것이다. 존스가 빠진 구멍은 어느 한 선수가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비수들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리그 최고의 라인배커 듀오인 제이미 콜린스와 단테 하이타워가 디펜시브 라인의 후미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다.

세컨더리: NFL 3위

스타 코너백 대럴 레비스의 빈 자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콤 버틀러가 훌륭하게 성장했다. 버틀러 외에도 패트리어츠의 세컨더리에는 로건 라이언, 데빈 맥커티, 패트릭 청 등의 재능 있는 선수들의 신구 조화가 잘 되어 있다.

jsi@bostonkorea.com

강정호, 역전 결승 2루타…김현수는 '3출루' 활약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강정호(29 ·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역전 결승 2루타를 때려내며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다.

김현수(28 ·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3차례 루상에 나가 '테이블 세터'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오승환(34 ·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8회 역전 위기에서 등판해 완벽히 틀어막았지만 9회 끝내기 홈런을 허용하면서 아쉬운 패전을 안았다.

이대호(34 · 시애틀 매리너스)는 팀이 역전극을 벌이는 가운데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고, 최지만(25 · LA 에인절스)은 결장했다.

강정호는 2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터너 필드에서 벌어진 2016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5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36을 유지했다.

강정호는 이날 단 한 개의 안타를 쳤지만 이 안타는 결승타점으로 연결됐다. 1-2로 뒤지고 있던 피츠버그는 6회초 1사 2루에서 맷 조이스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스털링 마르테의 안타로 계속된 1사 1,2루에서 강정호가 타석에 들어섰다.

초구 스트라이크를 흘려보낸 강정호는 2구째 공을 받아쳐 좌익수 방면 안타로 연결했다. 2루주자가 홈을 밟았고 강정호는 2루까지 향했다. 강정호의 시즌 13번째 2루타. 강정호의 적시타로 피츠버그는 3-2 역전에 성공했다.

기세가 오른 피츠버그는 2사 후 아담 프레이저의 2타점 적시타로 5-2까지 벌렸다. 이 안타 때 강정호도 홈을 밟았다.

강정호는 앞선 2회 첫 타석에서는 무사 1루에서 병살타를 쳤고 5회초에는 3루 땅볼로 물러났다. 강정호는 8회초 마지막 타석에서도 3루 땅볼을 쳐 추가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다.

6회 경기를 뒤집은 피츠버그는 이 스코어를 끝까지 지켜 5-3으로 승리했다. 3연패를 끊은 피츠버그는 53승51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를 유지했다.

김현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타자 좌익수로 나서 4타석 2타수 1안타 1볼넷 1사구 1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1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던 김현수는 최근 6경기 연속 안타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즌 타율은 0.331이 됐다. 또 세 차례나 루상에 살아나가며 제 몫을 다했다.

1회 첫 타석에서 병살타로 물러난 김현수는 두 번째 타석에서 만회했다. 4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김현수는 2볼2스트라이크에서 5구째 공을 공략해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로 연결했다. 선두타자 출루였지만 후속타자들이 모두 삼진으로 물러나 추가 진루는 하지 못했다.

강정호(29 ·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나머지 타석에서도 모두 출루에 성공했다. 김현수는 6회말 세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라 걸어나갔고, 8회말에는 1사 후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다. 8회에는 매니 마차도, 크리스 데이비스의 연속 안타로 홈을 밟아 5-1로 달아나는 쐐기 득점을 올리기도 했다.

9회를 무실점으로 막은 볼티모어는 5-1 승리를 거뒀다. 5연패 후 2연승을 기록한 볼티모어는 시즌 60승(45패) 고지를 밟으면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선두를 유지했다.

오승환은 아쉬운 패전을 안았다.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팀이 5-4로 앞선 8회 무사만루에서 등판해 위기를 넘긴 오승환은 9회말 스캇 셰블러에게 끝내기 3점홈런을 허용해 패전투수가 됐다.

보스톤 레드삭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타자 1루수로 선발 출장한 이대호는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마감한 이대호는 시즌 타율도 0.259로 하락했다.

starburyny@news1.kr

P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요!

본촌: Allston
돼지공: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s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돼지공: 16% 절약
Mr. Sushi: 19%절약
VIP Nails: 22%절약
Queens Nails: 24%절약
Great Nails: 37%절약
My Cleaners: 41%절약
Classic Cleaners: 13%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_ 617-466-2212

TOLL FREE _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 앙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Weekend Sunday 10am(English) 11:30am(Korean) 4:30pm(Korean)
Weekday Tuesday 10:30am(Korean), Thursday 7:30pm(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Mass Sunday 10 am (English)
2016년 6월 12일~ 2016년 8월 28일까지
2016년 9월 18일-본당의 날

New Mass Sunday 8:30 am (Korean)
6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같은 영광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는 (엡 3:16)

주일예배 / 오후 2: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아/유치/초등/중고등부예배/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1부 7:30	LIFE 모임/주일 4:00

담임 목사 / 우시형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톤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970.918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담임목사: 박일중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 전용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S.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승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평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오후2시
중고등부:오후2시
금요기도회:오후8시
주일학교:오후2시
새벽기도:주일12시
구역모임:구역별

담임목사: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프로
마스터 US 골프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예배에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897

UMS

15년동안 한인 비지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Bite
UP SOLUTION

UMS 보스톤지사 총괄책임 이선호
781.266.7245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옹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촛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C&S PLLC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재판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무더위에 더욱 위험한 뇌졸중, 50대 남성 특히 조심해야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뇌졸중은 여름에도 위협적, 고혈압 · 당뇨 등 위험요인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단일 질환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뇌졸중. 흔히 겨울철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름에도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뇌졸중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무더위에는 체내 수분이 감소하면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해지고 순환도 잘 안 되는데, 이때 혈압이 상승해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 또 실내외 온도 차가 크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어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과거 본인은 물론 부모님이 뇌졸중을 겪은 적이 있거나 고혈압, 심장병, 당뇨, 고지혈증, 뇌동맥류 등과 같은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특히 뇌졸중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50대 남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신경과 강석재 과장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피가 뇌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하고 되살릴 수 없다"라며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후유증도 무섭기 때문에 뇌졸중 고위험군이라면 원인 질환을 보다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인병 앓고 있다면 고위험군, 50대 남성도 주의 필요

뇌졸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고혈압이다. 뇌경색 환자의 50% 이상, 뇌출혈 환자의 70~88%는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더위에는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올 수 있는데, 고혈압인 경우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끈해져 혈관의 흐름을 방해해 혈압이 상승,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뇌졸중 환자의 75%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심장병을 동반한다. 심장 내 피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 부분적으로 정체되면 혈전이 발생하는데,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당뇨병 환자는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2배 정도 높고 사망률도 높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50대 남성은 이런 위험요소와 상관없이 주의해야 한다. 이 들은 그 동안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으로 수년간 뇌혈관에 크고 작은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졸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연령대다. 실제로 2014년 전국 143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뇌졸중 응급환자 현황을 보면 50대 남성은 11,045명으로, 50대 여성 5,516명과 40대 남성 5,313명에 비해 두 배나 높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다면 즉시 병원에 갈 것을 권고한다. ▲편측 마비-한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감각이 무뎌짐 ▲언어장애-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못하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음 ▲시각장애-한쪽 눈이 잘 안보이거나 두 개로 겹쳐 보임 ▲어지럼증-술 취한 것처럼 비틀대고 손놀림이 부자연스러움 ▲심한 두통-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 같은 두통, 토할 것 같이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증상.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 골든타임 1시간 이내 응급실에 도착해야

여름철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뇌졸중 발생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조기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뇌세포는 단 몇 분만 혈액공급이 안돼도 손상을 입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다. 가령 뇌경색의 경우 증상이 발생한지 3시간 이내에 정맥을 통해 혈전용해제를 주사해야 뇌혈관에 다시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다.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현재 상태가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를 빨리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사망을 막고 후유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보통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3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보다 더 빠른 6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한다. 병원에 도착해도 진단과 검사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그런데 막상 본인 또는 주변에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해서 시간을 지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때문에 뇌졸중 우려가 있는 위험군이라면 신속하게 뇌졸중 치료를 할 수 있는 집 또는 직장 근처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미리 파악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강석재 과장은 "응급실을 찾을 정도의 조기증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 과로나 수면부족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고, 최근 혀가 굳어지고 현기증이 생긴 적이 있는 경우, 또 손발이 저리고 눈앞이 침침한 적이 있었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라며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전산화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혈관조영술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휴람 해외의료사업팀의 김수남 팀장은 "한국을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휴람을 통해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및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벡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고장신고(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H)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 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E협회	781-424-5269
RI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입양아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산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몰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상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I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톤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어 벧엘교회	978-274-2369
엠허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허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워십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증축 루핑사이딩 창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향건축	617-688-6833
한샘㈜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딘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l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앤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서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액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가드(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운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훼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님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묵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틀어넥스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문히어링 보청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항 보험	781-325-3406
조종운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초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부동산

뉴스타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운 Realtor	617-678-9330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워너부동산	508-737-8636
신헌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0-3227

생선가게

매터팬피시마켓	617-298-2260
매일잔치피시	781-862-7984
보스턴피시	617-282-2980
브록턴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킴스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시스피시마켓	617-522-2028
K씨푸드	781-961-1114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주순두부(올스톤)	617-208-8540
가주순두부 (케임브리지)	617-864-6868
고향식당	413-586-2682
교토	401-232-3838
KIKU(한&일식)	603-882-8644
가유가	617-566-8888
뉴장수갈비	781-272-3787
다빈	781-860-0171
다오라스시	508-587-3920
다이나마이트	603-889-0055
다케무라일식	617-492-6700
리틀부산	978-897-5107
마소바 (Ma Soba)	617-973-6680
만나스시	781-648-8878
명동일번지	617-206-3229
미가	860-895-8739
미나도	508-647-0495
미나토 스시	617-731-5200
미소노	617-325-9919
Mr. 스시	617-731-1122
Mr. 스시 (Arlington)	781-643-4175
본촌	617-254-8888
본촌 하버드스퀘어	617-868-0982
북경반점1	617-623-7220
북경반점2	617-254-2775
비빔	617-787-5656
사무라이	617-236-7672
와보라	617-431-2284
사뽀로스시바베큐	508-898-1880
산수갑산	781-270-6200
서울설렁탕	617-505-6771
수라상주문음식	978-314-9752
순두부 CHO CHO'S	617-868-4246
아리수 레스토랑	978-466-8688
아리랑주문음식/케이터링	857-919-1549
영차우루	617-645-9066
오빠스시	617-202-3808
요시식당	617-623-9263
요코하마	978-689-4047
우리	781-859-8558
우전	781-221-8486
우정식당	978-772-5742
웨스트보로한국식당	508-366-8898
이가그릴	978-725-5222
Inaka	978-794-9806
제이피씨푸드카페	617-983-5177
수라 BBQ	781-391-5606
코리아나 식당	617-576-8661
코리언 그릴	617-472-1006
하나 스시	617-868-2121
한국가든	617-562-8989
한마루	617-779-7907
후지식당 (메인)	207-773-2900
Suishaya	617-423-3889
ZEN320	617-566-7800

식품

고향식품	413-586-2682
미래식품	401-941-9419
릴라이어블마켓	617-623-9620
신신식품	978-686-0813
Sun 동양식품	207-772-8675
H마트	781-221-4570
오미식품	413-736-7878
제일식품	413-592-5452
청계식품	978-772-5213
아시아나 마켓	401-438-9992

여행사

오리엔트여행사	617-536-8888
유니버스여행사	617-739-2888
코리아여행사	617-267-7777
하나여행사	800-368-6977
IACE여행사	617-424-8956

운송(이삿짐)

대한이삿짐㈜	877-460-2424
대한통운 보스톤지사	978-461-2424
범양해운 보스톤지사	617-645-1538
보고운송/보고해운	866-411-2424
OHNK(오앤케이)	978-922-0929
우리익스프레스	617-699-6272
한진택배 보스톤 대리점	617-782-2424
한진택배 귀국이사	617-935-3022

의류/잡화/신발

Alpha & Omega	617-427-3044
Melting Pot	617-298-2288
New York Fashions	617-427-2632
남녀옷수선전문점	781-273-0006

이발소

린든이발관	781-489-5633

인쇄/디자인

나비스	617-756-5744

자동차(정비)

SUN AUTO(태양자동차)	617-868-2500
대진자동차 (정비)	781-275-0384
Auto Tech	917-566-8161

자동차매매(리스)

태양자동차공업	617-868-2500
USA SPEEDY AUTO	978-535-3855
박석만 Auto Body	978-686-9546
사우스네틱걸프	508-653-4100
올스톤오토브로커스	617-787-6229
자동차국내보증리즈구매	617-755-6941

주류

산소주/참소주/백세주	617-216-6472

정수기

American Rainforest	617-787-1667

지압원/스파

마음수련센터	781-643-2651
CHO'S SPA	781-231-0606

치킨

본촌	617-254-8888
본촌 하버드스퀘어	617-868-0982
세일럼본촌	978-594-8256
K-town 치킨	617-337-3500
윙잇	617-783-2473

컴퓨터

ACCESS TECH	617-308-1053
Boston HTPC	617-645-8885
FIXALL	617-710-4952
MICRO DIMENTIONS	781-830-1060

콜택시

Boston 한국 콜택시	781-964-2438
태양 콜택시	617-880-9844

플러밍

Dr. Drain	617-645-6146
JK Plumbing	978-303-7000
SC Plumbing&Heat	781-858-1611

태권도/무술/단전

구정회태권도장	781-935-3773
권TKD아카데미(권영안)	978-858-3699
김영권태권도	978-688-1037
김재훈태권도장 Camb.	617-492-5070
박스TKD스쿨(박선우)	603-433-2099
박스TKD아카데미(박영학)	978-345-3007
NH태권도(정운학)	603-714-5472
Sun 태권도 아카데미	978-777-5435
윤스 태권도	781-430-0075
이강원 태권도장	781-344-7900
이종수태권도도장	603-623-1022
이평팔중앙태권도도장	617-776-6161
조올림픽TKD (조형구)	781-326-9009
초이TKD아카데미(최창헌)	413-736-1008
초이TKD아카데미(최호진)	508-478-6600
KIM's TKD(김영훈)	508-898-2882
MASTER AN'S TKD(안남열)	978-453-5387
MuHan Martial Arts	978-500-3322
US태권도센터(정재형)	508-767-1717
세계 심검도 협회	617-787-1506
미국 심검도 협회	617-787-1506

학원/영어학원

네일자격증학원	781-273-0006
보스톤 한국운전교습	617-461-9270
뉴잉글랜드 유학원	617-877-0387
대림유학원	617-301-2344
렉싱톤프렙스쿨(LPS)	781-860-7550
보스턴교육원	339-234-5255
Boston Street Consulting	617-431-5353
보스톤유학원	617-491-0041
선진 학원	781-863-0677
영토플	617-783-9822
청담어학원	617-960-8877
ASC English	617-730-3705
BIA 보스톤 어학원	617-731-6390
Eduwellboston	617-795-0879
Harvard Square Academy	617-492-2722
SATplus	781-398-1881
ACE Academy	617-274-5723

한국 학교

뉴잉글랜드한국학교	508-842-1551
뉴햄프셔한인학교	603-437-5134
로드아일랜드한국학교	401-274-2044
메인 한글학교	207-797-8711
밀알한글학교	678-516-4974
보스턴시온성한국학교	978-256-5655
보스턴장로교회한국학교	508-435-4579
보스턴한국학교	617-739-2663
북부보스톤한국학교	978-390-1552
성요한 한국학교	781-861-7799
우리뿌리 한국학교	603-674-3415
우스터-트윈시티한국학교	508-799-4488
좋은땅한국학교	978-930-6613
퀸지영생한국학교	781-356-8586

한의원

뉴라이프헬스센터	617-524-9551
선가든힐링 센터	617-953-4988
선유당	617-327-1812
용한의원	774-270-2621
은혜 한의원	781-862-1842
일선당 한의원	617-787-4503
혜민 한의원	617-787-0789

화장품

아모레	781-229-6800
소라 시세이도	617-876-7200
제시카 뷰티	617-770-0188
CoCo 화장품	781-272-3137
FELICIA'S COSMETICS	617-927-4433

기타

보스톤 마음 수련원	781-643-2651
보스톤 온수비데	781-274-6928
이주연 의료통역	603-502-7228
최보살	781-506-6262
Emmanuel P.L.Trading Inc.	781-541-0081
한미번역센터(토마스)	781-688-8151
윤광현 SolarCity	978-390-4738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이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마감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 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7/22
청소하실 분 부부 구함.
영주권 소지자.
T. 617-504-8283

7/29
웨슬리 지역 세탁소에서 카운터 보실분 구합니다.
T. 978-995-3725

8/5
렉싱톤소재 한국식당 (한식/일식)
풀타임 웨이트레스/웨이터 구함.
T. 781-860-0171 (Kay)

세탁소에서 일할 분 구함

렉싱톤 소재 세탁소에서
테일러와 셔츠프레서 그리고 어셈블리 하실 분 구합니다.
- 테일러: 1명 풀타임/파트타임
- 셔츠프레서: 1명 풀타임
- 급여: 협상 후 결정

* 경험자와 영어 가능자 특별 우대

연락처: 617-319-4134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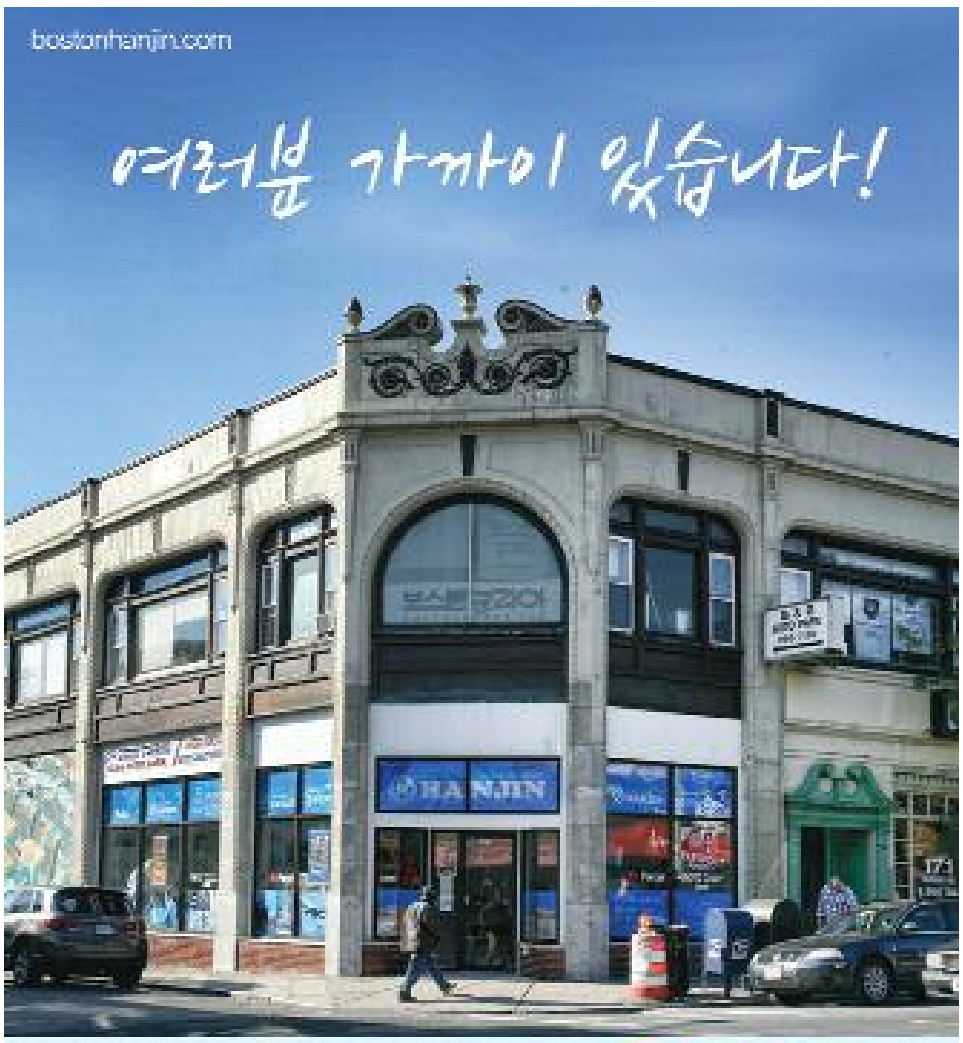
광고 문의 617-254-4654

8/26
뉴햄프셔 네슈아 한식/일식 식당 매매.
좋은 위치, 9년 째 성업 중
T. 603-882-8644 (오후 4시 이후)

없는거 없습니다!
BOKO MART
BOKOMART.COM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한진
1/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어포더블 하우징 기회
웨이트리스트 리오프닝

ROXSE HOME APARTMENTS
1042 TREMONT ST., BOSTON, MA

록시 홈 아파트는 섹션8 프로그램에 따른 2베드룸 가족 아파트 어포더블 하우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신청자들은 로터리에 따라 선출되어 순서대로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결코 신청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는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는 2016년 8월 8월 월요일부터 8월 29일 저녁 5시까지(로터리 기간)까지 직접 전달 방식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우편의 경우 반드시 8월 8일부터 29일사이의 우편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일절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록시홈아파트먼트의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30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8월 16일 화요일에는 저녁 7시까지 문을 엽니다.

로터리 선출은 9월 1일 12시에 열리며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대기자 순서 번호를 알여드립니다. 관심있는 신청자는 록시 홈사무소(1042Tremont Street, Boston, MA)에서 직접 신청서를 받아 접수해도 되며 사우스엔드퍼블릭라이브러리(South End Public Library, 685 Tremont Street, Boston, MA(업무시간 월수10시-6시, 화요일 12-8시, 금9-5, 토9-2시)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간단히 www.PeabodyProperties.com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입한 신청서는 록시 홈관리실(Roxse Homes at 1042 Tremont Street)로 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받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유로 집이 당장 급하거나 영어를 이해 못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617-242-4016 또는 MA TTY: Dial 711 or 1.800.439.2370로 사전에 전화 주세요.

Income Limits *(as of 3/28/16)*:

HH#	Maximum Income 30% AMI	Maximum Income 50% AMI
1	$20,650	$34,350
2	$23,600	$39,250
3	$26,550	$44,150
4	$29,450	$49,050

모든 신청자들은 HUD의 기준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족 수도 베드룸 수와 맞아야 하며 최대 소득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기자 명단은 로터리 기간에도 계속 신청을 받도록 오픈해 놓을 예정이며 이 때부터는 신청서를 받는 순서대로 대기 순번이 배당됩니다.

*평균소득 수준, 렌트, 유틸리티 비용은 모두 연방 HUD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당장 숙박이 필요한 경우 미리 연락 주세요. 이곳에 있는 정보는 사전 통지 없이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강호X공유, '밀정' 연타 흥행 홈런 날릴까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흥행 배우' 송강호와 공유가 '밀정'으로 만났다. 지난해 9월 영화 '사도'로 추석 극장가에서 흥행 성과를 이뤄낸 송강호와 영화 '부산행'으로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공유가 연타 흥행 홈런을 날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압구정에서 영화 '밀정'(감독 김지운)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밀정'은 1920년대 말, 일제의 주요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상해에서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려는 의열단과 이를 쫓는 일본 경찰 사이의 숨막히는 암투와 회유, 교란 작전을 그리는 영화다. 배우 송강호, 공유, 한지민, 엄태구, 신성록 등이 출연한다.

조선인 일본인 경찰 이정출 역을 맡은 송강호는 '밀정'으로 김지운 감독과 네 번째 작업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송강호는 "8년 만에 김지운 감독과 만났다. 8년 주기로 작품을 하게 됐다. 마음이 편안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이어 "김지운 감독과는 예전부터 같이 작업을 해왔다. 동지로서 내게 의미가 있는 분이 아닌가 싶다"면서 "김지운 감독은 다양한 장르를 변주하는 능력도 있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독창적인 캐릭터들을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송강호는 "공유는 현장에서도 열심히 했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공유는 맑은 영혼을 가진 친구 같다. 배우는 이해관계로 얽힌 작품을 통해서 만난다. 그래서 '맑다'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로부터 너무나 맑은 심성의 영혼이 전해졌다. 어떤 작품을 만나도 본인의 열정이 100% 순수하게 투과될 수 있는 배우다. 보면서 흐뭇했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밀정'의 액션신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공유는 "처음에 영화를 하기로 했을 때 그런 액션신이 시나리오에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지 않았다"면서 "그냥 의열단의 브레인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많이 액션을 하게 될 줄 몰랐다. 액션이 너무 생각 보다 많더라"고 너스레를 떨고는 "전에 했던 영화에선 액션신이 합 위주였다면 이번엔 총격신이 있어 재미있었다"고 고백했다.

aluem_chang@news1.kr

손예진, '덕혜옹주' 위한 필요충분조건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영화 '덕혜옹주'(감독 허진호)의 성패는 주인공 덕혜옹주을 연기하는 주연배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우로서의 연기력과 역량 뿐만 아니라 작품을 대하는 배우의 진정성 역시 요구됐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은 '덕혜옹주'에 진심과 책임감을 다해줄 배우가 캐스팅되기를 바랐다. 손예진의 캐스팅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에 대한 이견이 전혀 없었을 만큼, 손예진에 거는 기대감은 상당했다. 그간 손예진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쉬이 알 수 있듯, 배우로서 영화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끊임 없는 도전 자세가 관객들에게 신뢰감을 안겼기 때문이었다.

손예진은 최근 언론시사회를 통해 베일을 벗은 '덕혜옹주'에서 "인생 연기"라는 극찬을 받았을 만큼 진정성 넘치는 열연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손예진이 연기한 덕혜옹주는 고종의 금지옥엽 고명딸이자 조선의 마지막 황녀다. 고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된 후 만 13세가 되던 해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끌려가게 된다. 매일 같이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일제로부터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가슴 한 켠에는 독립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인물. 이후 어린 시절 친구로 지냈던 김장한(박해일 분)과 재회하게 되고 영친왕 망명 작전에 휘말리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

'덕혜옹주'는 손예진이 연기한 덕혜옹주의 삶을 통해 왕족이 지녔던 조선의 독립이라는 대의와 대한민국이 잊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일생을 동시에 보여주려 한다. 영화적으로 극화된 영친왕 망명 작전과 팩트에 기반한 덕혜옹주의 삶을 엮은 장면들이 그렇다. 허진호 감독은 제작보고회 당시 세월이 느껴지는 영화에 대한 바람이 '덕혜옹주'를 연출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덕혜옹주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1961년 귀국 이후까지의 삶들이 감독의 의도대로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기도 한다.

연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화의 팩션과 픽션의 간극을 메우고 그 간극에 대한 설득력을 부여하는 건 배우의 몫일 것이다. 손예진은 언론시사회 당시 "타이틀롤 덕혜옹주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덕혜옹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소설 속에 나오는 장면들도 있지만 망명 장면 등은 영화를 위한 장면이었다. 덕혜옹주가 살아온 것은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끊임 없이 고민했다"고 촬영하며 노력했던 점들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영친왕 망명 작전이지만, 나라를 잃은 비극과 매순간 마주해야 했던 덕혜옹주의 모습에서 손예진의 연기는 방점을 찍는다. 손예진은 일제의 강요와 개인의 바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덕혜옹주의 모습을 통해 감정 이입을 더욱 극대화한다. 덕혜옹주를 왕족으로서가 아닌, 조선이 그리웠던 평범한 여성으로 대할 수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후 결말에 대한 당위성이 손예진이 쌓아올린 감정선으로 인해 성취될 수 있었고, 덕혜옹주의 귀국이 더욱 드라마틱하고 감동 깊게 다가올 수 있었다.

손예진이 '덕혜옹주'에 몰입하기 위해 노력했던 현장에서의 각종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이미 덕혜옹주가 돼 있었다"는 박해일의 말처럼, 덕혜옹주 그 자체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손예진이다. 제작발표회 당시 "세월이 느껴지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던 허진호 감독의 바람처럼, 덕혜옹주의 어린 시절부터 귀국 후의 모습까지 드라마틱하게 구현됐다. 그 세월에 함께 녹아들기 위한 손예진의 노력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흥행 이후 다시 여름 시장에 뛰어든 손예진이 그 노력을 흥행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aluem_chang@news1.kr

하정우, '터널'과 세월호가 비슷? "보편적 진리가 같을 뿐"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배우 하정우가 세월호 사건과 영화 '터널'에 대해 언급했다.

하정우는 4일 저녁 7시55분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터널'이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말들이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세월호 같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어떻게 감히 소재로 쓰겠느냐. 조심스러움이 앞선다.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건 생명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하정우는 이어 "오달수 선배님의 대사 중 '도롱뇽이 아니다 사람이다.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저 안에 있는 건 사람이다'라는 대사가 있다. 가끔 우린 보편적이면서 진리에 해당하는 걸 간과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 영화는 그러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석희 앵커는 "앞서 감독이 했던 말도 인상적이었다. 같은 질문에 '이 영화가 세월호를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그런 연관성을 떠올린다면 그런 현실이 슬픈 것이다'고 답했더라"고 덧붙였다.

nahee126@news1.kr

한주간 TV 시청률 순위

2016년 7월 25일 ~ 2016년 7월 31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8.2%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3.4%
3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20.4%
4	SBS	월화드라마(닥터스)	19.0%
5	KBS1	KBS9시뉴스	17.4%
6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6.4%
7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15.5%
8	KBS2	TV소설(내마음의꽃비)	13.3%
9	KBS1	전국노래자랑	13.2%
10	KBS1	가요무대	13.1%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	S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3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4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5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6	SBS	월화드라마(닥터스)
7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8	SBS	일일드라마(당신은선물)
9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0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유헌 차트 순위 10

01	Why So Lonely	원더걸스
02	Day Day (Feat. 박재범)	BewhY
03	너 그리고 나 (NAVILLERA)	여자친구
04	Forever (Prod. By GRAY)	BewhY
05	CHEER UP	TWICE
06	I Like That	씨스타
07	냉탕에 상어 (Feat. 블랙넛)	슈퍼비
08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09	Shut Up (Feat. 유희열)	언니쓰
10	호랑나비 (Feat. Gill, 리듬파워)	보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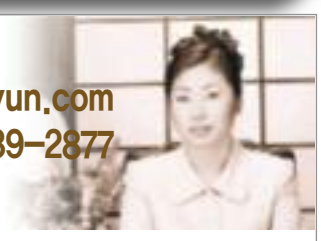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6			9		
3		8		1		7	6	
	2			5				4
		5			3		9	
	3	7		9		1	4	
	4		1			5		
7				2			1	
	8	1		7		3		9
		3			1			

8월 7일 – 8월 1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인맥을 잘 활용하고

●운수:인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발 앞서서 빨리 정보를 손에 넣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되어줍니다. ●금전 : 해결책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세요.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애정:감전된 듯 한 느낌을 받거나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기 쉽습니다.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9, 11일 길일. 7, 13일 주의.

소띠 | 잠시 잊고 있었지만

●운수: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자신을 위한 지출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 애정:잠시 잊고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7, 10일 길일. 8, 11일 주의.

범띠 | 지금 투자하게 되면

●운수:능력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삶에 대한 불만이 커집니다. ●금전:지금은 어떤 형태의 투자든지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투자하게 되면 손해가 따릅니다. ●애정:좋아하는 상대 때문에 혼자 애태우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 때문에 혼자서 눈물을 흘리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8, 13일 길일. 7, 9일 주의.

토끼띠 |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고

●운수:이사하거나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하군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움직이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닙니다. ●금전:문어발식의 경영으로 늘려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정:마음 속 깊이 감춰두고 있었던 옛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그리워집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

용띠 | 예상외의 소득이 따라주고

● 운수:물은 흘러야지 한 곳에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과 변화가 필요한 때이니 시도해 보세요. ● 금전:예상외의 소득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것을 무난하게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처럼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7, 10일 길일. 8, 11일 주의.

뱀띠 | 돈이란 없다가도 있고

● 운수:후회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자신의 본분과 품위를 잃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돈이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면서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 애정: 사랑을 몹시 갈구하면서도 조용히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드러내 보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

말띠 | 감정조절을 잘해야

● 운수:감정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주입니다. 스스로 살펴서 감정조절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거나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애정: 무심한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질투심이 심해지면 필요 이상으로 상대의 행동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고 결국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양띠 | 밝은 미래를

●운수:감상적이고 낭만적인 것에 빠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약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분위기에 휩쓸려서 후회하게 되는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즉흥적인 기분으로 낸다거나 후한 인심을 쓰게 됩니다. ●애정:과거의 추억에 젖어 있거나 쓸데없는 공상 속에 파묻혀 보내기 쉽습니다. 밝은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

원숭이띠 | 예상 밖의 결과를

●운수:100% 다 된 일이라고 쉽게 장담하거나 믿지 마세요. 뜻밖의 변수가 예상 밖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 현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미묘한 호기심을 생기는 상대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감추느냐고 애쓰고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7, 10일 길일. 9, 12일 주의.

닭띠 | 순리적으로 흘러가야

● 운수: 이왕에 마음을 잡은 김에 밀어붙여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루면 또 이런저런 일로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순리적으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익도 생기게 되고 금전적인 안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애정: 결혼생활에서도 연애시절과 같은 애정을 갖고 상대에게 숨기는 것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8, 10일 길일. 10, 13일 주의.

개띠 |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 운수:평소 때보다도 두뇌회전이나 판단이 잘 될 것입니다. 일에 집중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기획안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 금전:진정성이 통하고 이득으로 연결해줍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자를 만납니다. ● 애정:감정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결혼식이나 약혼식을 하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2, 13일 길일. 7, 11일 주의.

돼지띠 | 최상의 해결책이

● 운수:너무 욕망이 크고 마음만 앞서다보면 세심한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즉흥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는 결국 쓴잔을 마시게 됩니다. ● 금전: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 애정: 시일을 두고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급히 서두르는 경향이 있군요.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데 있어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0, 13일 길일. 9, 12일 주의.

김국진X강수지, '불타는 사랑'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안티없는 열애 인정이다. 김국진과 강수지의 만남은 전국민이 응원하고 있다. 이제 열애지만 벌써 대중은 결혼까지 바라는 모양새다. 두 사람의 '불타는 청춘'이 제대로 시작됐다.

김국진 소속사 측은 4일 "두 사람이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결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강수지와의 열애를 인정했다.

강수지 측 역시 김국진과의 열애를 인정하며 "결혼 계획은 아직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현했다.

두 사람은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좋은 만남을 시작했다. '불타는 청춘' 파일럿 부터 함께했던 원년 멤버이자 '치와와 커플'이라고 불릴 만큼 대중들의 호감을 샀던 커플이기도 하다.

'불타는 청춘' 안에서 은근한 밀당과 서로에 대한 배려를 보였던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열애를 시작한 것에 대해 모두가 응원하는 분위기다. 또 양측 모두 상처가 있었던 만큼 성급하지 않게 만남을 지속하길 원하고 있다. 결혼 계획에 대한 언급이 유독 조심스러운 이유도 그 중 하나다.

김국진은 '불타는 청춘' 안에서 개그맨으로서 보여졌던 이미지가 아닌 묵묵하면서도 남성적인 매력으로 다가왔다. 강수지 역시 그런 김국진과 호흡을 맞추며 '불타는 청춘' 공식 커플로 활약했다.

두 사람의 '진짜 만남'은 이제 시작이다. 또 현재 '불타는 청춘'이 방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열애에 대한 언급을 할지도 새로운 관심사로 작용하고 있다. 제대로 '썸'타고 열애를 시작하며 '불타는 청춘' 2막을 시작한 두 사람에 대한 응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무한도전' 다방구 게임 도전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에서는 '두근두근 다방구' 게임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멤버들은 최근 진행된 MBC '무한도전' 녹화에서 다방구 게임에 도전했다. 다방구 게임은 술래는 심장 박동수를 100BPM 미만으로, 도망자는 100BPM 초과로 유지하지 않으면 위치가 공개되는 게임이다.

당시 녹화에서 유재석-박명수, 정준하-하하, 양세형-광희는 각각 한 팀을 이뤄 게임에 나섰다. 도망자가 된 멤버들은 심장 박동수를 높이기 위해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 서로를 흥분시키기 위해 악담까지 서슴지 않았다. 잠시만 서있어도 떨어지는 심장 박동 수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쉼 없이 뛰어다녀야 했다.

지난 주 타로카드를 통해 의외의 찰떡궁합을 예고하며 짝이 된 광희와 양세형은 막내 라인답게 SNS를 활용하는 등 신선한 방법으로 멤버들을 찾아다녔다. 또 추억의 '미미 시스터즈' 정준하와 하하 커플은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심장 박동수를 유지하며 예상 못한 위치를 본부로 정해 도망자들을 당황시키기도 했다.

반면 광희를 지목했지만 커플 성공에 실패하며 짝이 된 유재석-박명수 팀은 세 팀 중 가장 많은 운동량으로 심장 박동 수를 유지하며 1.2인자 커플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후문이다.

aluem_chang@news1.kr

이상민, 연예인들 상담사 등극한 사연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가수 이상민이 연예인들의 상담사로 활동 중인 사실을 고백했다.

3일 밤 11시 10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에서는 단짠단짠 특집이 펼쳐졌다.

이날 이상민은 연예인들의 각종 상담을 전담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내가 많은 일이 있었다. 웬만한 질문에 80%에 가까운 질문에 대답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안에 사기를 당했거나 그럴 때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법적 조치 진행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해준다"고 말했다.

규현이 "상담료를 받냐"고 묻자 이상민은 "상담료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이상민, 솔비, 경리, 권혁수가 출연했다.

Korean speaker :
Sales Representative Wanted

True World FOODS

True World Foods is a leading food wholesaler delivering sushi related products to restaurants throughout New England.
We are expanding into the Korean markets and need a rep who can speak Korean, but who is also competent in English.
The job starts at 8am Monday through Friday (work a half day every other Saturday).
Need to maintain customer accounts and opening new accounts, visiting customers.
Should have a valid driver's license with a relatively clean driving record, adequate office skills including computer literacy, and familiarity with the restaurant business and/or wholesale food business would be a plus.

Compensation will be based on your experience and abilities. Benefit package and/or green card sponsorship may be available.

To apply please send your resume to:
True World Foods Boston c/o 스티브 김,
22 Foodmart Road, Boston, MA 02118.
Or email to stevekim@trueworldfoods.com
Tel: 617.596.1377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S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센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7월 4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아이가 다섯
2	K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3	KBS	여자의 비밀
4	KBS	별난가족
5	MBC	다시시작해
6	SBS	닥터스
7	MBC	좋은사람
8	KBS	당신은 선물
9	KBS	가화만사성
10	MBC	옥중화

티보플레이 7월 4째주 신규 방송

1	SBS	끝에서 두번째 사랑
2	CJ	언프리티 랩스타 3

티보플레이 7월 4째주 최신 영화

1	트릭	이정진, 강예원

'트릭', 자극적 소재 · 방송 조작 논란에 일침 가할까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영화 '트릭'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의문이 제기됐던 방송 조작 논란이라는 흥미진진한 소재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트릭'은 휴먼 다큐 PD 석진과 도준의 아내 영애가 명예와 돈을 위해 시한부 환자 도준을 놓고 은밀한 거래를 하는 대국민 시청률 조작 프로젝트를 그린다.

최근 리얼리티성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기리에 방송됐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점수 조작을 시작으로 악마의 편집에 대한 찬반 여론,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출연자 조작, 먹거리 고발에 대한 뜨거운 논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을 위해 실제 상황이 아닌 자극적인 상황들의 설정과 연출로 방송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트릭' 또한 공공연하게 알려진 방송가의 숨겨진 시청률 조작을 생생하게 파헤치는 흥미로운 소재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대한민국에 큰 파장을 일으킨 특종이 오보로 밝혀지자, 한순간에 방송가에서 매장된 PD 석진(이정진 분)은 과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휴먼 다큐멘터리 연출을 맡는다.

시청률 35%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석진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의 곁을 지키는 영애(강예원 분)와의 은밀한 거래는 기본,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휴먼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도준(김태훈 분)을 위기에 몰아넣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촬영을 진행한다.

uu84@news1.kr

더 독해진 '언랩3', 제시 넘는 '센언니' 누가될까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언프리티 랩스타3'가 한층 독해진 여성 래퍼들의 경연을 예고했다. 제 2의 제시의 탄생이 아닌 제시를 넘어서는 여성 래퍼의 탄생을 예고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Mnet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3' 제작발표회에는 래퍼 그레이스, 와썹 나다,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료, 유나킴, 육지담, 자이언트 핑크, 전소연, 제이니, 케이시, 하주연과 고익조 CP가 함께 했다.

'언프리티 랩스타'는 매회 최정상 프로듀서들의트랙을 놓고 여자 래퍼들이 경쟁을 펼쳐 컴필레이션 앨범을 제작하는 국내 유일 여자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시즌1에서는 '센언니' 캐릭터를 완성한 제시부터 남성 래퍼 못지 않은 실력으로 사랑받았던 치타까지 개성 가득한 여성 래퍼들이 총출동했다.

reddgreen35@news1.kr

tbo PLAY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보스톤글라이어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Mnet Olive ocn
The Best Ondeman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LISTINGS

1. Full Float 세탁소 : 보스톤 북부 [illegible] $1,350 SOLD
2. Full Floa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illegible]
3. Full Float 세탁소 : Westsbury 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택살림, Asking $[illegible]
4. 오픈 Full Float 세탁소 : Stoneham에 위치, $[illegible]
5. 드레스샵 스토어 : Stoneham에 위치, $[illegible]
6. 프랜차이즈 스토어 : Normal에 위치, $[illegible]
7. 보스톤 [illegible] 정식매물 : Asking $[illegible] SALE PENDING
8.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WRITTEN
9. Single family : [illegible] Willow park, Wellesley SOLD
10. Condo : [illegible] Allston SOLD
11. Single Family : 23-25 Baker St., Dedham SOLD
12. 세탁소 : Allston SOLD
13. Single Family : [illegible] Newton SOLD
14. Condo : 47 Homer ave Unit B-3 Cambridge SOLD
15. Condo : 47 Gordon St. Unit Allston SOLD

NEW LISTINGS

렌트
12-14 Silvey St, Unit 403 Cambridge
2 Bed 2 full bath, [illegible] sq.피트 이상
Rent includes heat, hot water, [illegible]
월 $3,000

렌트
11 Hibbert St. Lexington
Single Family
5Bed 1Bath
월 $2,700

렌트
[illegible] Porter St, Unit [illegible] East Boston,
Loft style 1Bed,
좋은위치 다운타운접근 1개월
월 $2,400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80,000

비즈니스 리스
51 Union Square
Somerville, 1,400s.f.
월$2,500 + NNN

Single Family
6 Susan Way Bedford
4Bed 2.5Bath 3,080 s.f. 0.9 Acre
Cul-de-sac lot,
UNDER AGREEMENT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Price Reduced
Asking $19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론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Price Reduced
Asking $509,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5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늦둥이 제일라의 '첫돌'을 축하하며...

엊그제는 가깝게 지내는 동생의 늦둥이 딸 제일라의 '첫돌'을 축하하러 다녀왔다. 친하게 지내는 동생에게는 씩씩하고 든든한 두 아들 녀석(만 16살, 13살)이 있다. 그런데 아들 둘만 있다 보니 딸 있는 엄마들을 보면 내심 부러운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딸을 갖고 싶어도 아이를 갖기에는 왠지 늦은 감이 있어 지나치곤 했었는데 어느 날 하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이다. 동생(엄마)이 만 45살 동생의 남편(아빠)이 만 46살에 귀여운 늦둥이 막내딸을 얻은 것이다. 늦둥이를 낳고 동생 부부를 만나게 되면 늘 행복이 절로 넘쳐흘렀다.

동생의 남편은 비지니스를 하고 있으며 가끔 골프 라운딩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동생은 두 아들과 딸을 키우며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과 열정이 많은 편이며, 미국의 학교 교육뿐만이 아닌 한국의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한국의 전통문화 역사의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얼굴을 만나게 되어 좋다. 이민 생활이 늘 바쁘고 아이들 챙기기에 힘든 여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 바쁜 일손과 일상에서 세 아이를 키우며 교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나 역시도 셋을 키워보았기에 아는 까닭이다.

동생 부부는 상냥하고 친절한 편이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편안하게 맞아주고 대해준다. 그래서 언제나 그 부부 곁에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편안한 동생을 곁에 두었다는 것이 내게도 참으로 고맙고 행복한 일이다. 가끔 사는 얘기를 카톡으로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고마운 언니와 동생으로 지낸다. 요즘처럼 부부라고 하더라도 무덤덤해 보이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무늬만 부부로 사는 이들도 생각보다 더 많다는 것에 가끔은 안타까운 마음마저도 든다. 하지만 이렇게 동생 부부처럼 다정한 부부를 만나면 나 역시도 남편을 챙기게 된다.

'첫돌'을 맞은 제일라 조는 미국 이름이고 한국 이름은 조은이다. 처음 아기 미국 이름이 '제일라'라고 소개해주는 동생에게 우리는 최고로 예쁜 딸(제일 낫다)이라고 제일라라 지었냐고 하며 한바탕 웃음을 나누었었다. 만 마흔다섯에 얻은 늦둥이 딸이니 얼마나 귀엽고 사랑 스러울까. 귀여운 제일라를 만날 때마다 나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올린다. 나 역시도 어머니 마흔둘 아버지 쉰에 늦은 막둥이로 태어나 귀염과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말이다. 제일라로 인해 가정과 이웃과 곁의 모든 이들이 행복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제일라의 '첫돌잔치'가 있다고 미리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몇몇 친구 부부들과 친구들이 함께 갔다. 우리가 도착하고 얼마 후 초대받은 지인들이 한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많은분들이 제일라의 첫돌을 축하해주러 오신 것이다. 현관을 들어서는데 양쪽 벽에 제일라의 탄생하기 전 잉태 기록부터 시작하여 태어난 사진과 기록, 딸과 마주했던 느낌들을 적은 노트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담은 많은사진들과 백일잔치의 지난 사진들까지 지난 1년 동안의 예쁜 모습들은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참으로 감동이었다.

그뿐일까. 늦둥이 막내딸 제일라의 '첫돌' 축하를 위해 아빠는 정성 들여 붓글씨로 '첫돌'이라고 써 놓은 것이다. 잠시 그 붓글씨를 보며 깊은 생각에 젖었다. 딸의 건강과 총명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아빠의 기도가 먹을 갈면서부터 시작해 화선지에 정성들여 붓글씨를 쓰고 마치며 마르기까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내게도 참으로 감사가 가득 차올랐다. 그 붓글씨를 보면서 나 역시도 제일라를 위해 건강하게 자라고 총명하게 자라 어느 곳에서든 누구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듯 부모와 가족과 여러 친지들과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첫돌'을 맞은 예쁜 제일라의 모습을 보니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행복한 웃음으로 서로 마주하며 나누는 것이다. 이처럼 늘 행복을 선사하는 '행복 덩어리'로 자라주길 바란다. 따뜻한 부모의 사랑과 다정한 두 오빠의 사랑을 받으며 맑고 밝게 자라주길 기도한다. 참으로 화목한 가정을 보며 바라보는 내 마음도 행복이 가득 차올랐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절바른 모습의 동생 부부를 통해 많이 배우고 또 익힌다. 화목한 가정의 늦둥이 제일라의 '첫돌'을 축하하며...

한담객설閑談客說: 라면먹고 갈래요?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라면먹고 갈래요?'.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가 키가 멀대처럼 큰 배우에게 던진 코멘트이다. 라면으로 밀당이 시작된 건가? 영화에서 연애가 라면처럼 맛있다.

아직 신혼 시절 적 이다. 라면에 찬밥을 말아 먹는 내 모습에 아내는 기겁을 했다. 가엽다는 표정이었는데, 눈길을 돌리며 혀를 차는듯 싶었다. 결혼전 처가에서는 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걸 본일이 없는 거다. 내가 속으로 투덜거렸다. 이 황홀한 맛을 알지 못하는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것도 신혼일 적이다. 라면은 역시 송학표 양은 냄비에 끓여야 한다. 하나를 끓였다. 어린 아내에게 건성으로 물었다. 라면 먹을래? 고개를 가로로 젓는 아내를 보면서, 하나만 끓였다. 보글보글 끓은 라면을 먹으려 젓가락을 들었다. 퍼지는 라면 냄새에 아내가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더운 라면냄비를 향해 돌진해왔다. 사랑스런 아내에게 주지 못할게 무엇인가.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내 안색이 바뀌었고,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 먹는다며. 내가 먹고 끓여 줄께.' 그렇다고 참을 수 없는 라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당찬 아내가 아니다. '아냐, 라면은 뺏어 먹는게 제맛이야.' 아아, 아내냐 라면이냐.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속으로만 가시돋친 말을 삼켰다. '너 다 먹어라.' 아내의 이 못된(??) 버릇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라면은 안경을 벗고 먹어야 한다. 면발을 삼킬 적에 입에서 후르륵 소리가 나야한다. 오물오물 먹는 건 아니다. 라면 국물은 그릇을 입에 대고 살살 불어가며 마셔야 한다. 스푼으로 떠서 먹는 건 라면국물을 모독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게 라면에 대한 예의 일 것이고, 맛을 아는 매니아의 행동수칙 일게다. 그런데, 이런 건 선비가 할짓은 못된다. 그래도 어쩌랴. 인이 박혀 있은걸. 라면 한개의 행복이라 해야 할꺼나.

무지한 식욕을 부끄러워 말자
정말 산다는 것은 허기를 다스리는 일
권력도 부도
라면 한 개의 포만감보다
못한 것을
(정구찬, 라면을 끓이며)

내가 라면을 처음 맛본건, 열살 즈음일게다. 어머니는 닭이 그려진 라면을 사오셨고 그걸 끓여 주셨다. 어린 아들과 중년의 어머니는 그런데 젓가락을 쉽게 라면 그릇에 댈 수 없었다. 더운 김에선 전혀 맡아 보지 못했던 냄새가 날려 나왔기 때문이다. 국물에 뜬 기름기는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국물을 버렸다. 비상책이고, 임기 응변이다. 남은 라면국수를 물에 헹궜고, 멸치국물에 말았다. 어머니의 말씀. '이제야 먹을만하군.' 어린 아들은 적극 동의 했다. 어머니나 어린 아들은 라면 비린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다. 버린 라면국물을 아까워 하지 않았다. 뜨거운 라면 국물의 참맛을 알려면 한참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라면을 끊을 수 없다. 아내에 말에 순종하는 착한 남편일지라도 이것만은 저항이다. 참을 수 없는 라면의 유혹이여. 내가 일생동안 먹어치운 라면은 몇개 일까? 기록하지 않았으니 알 수 없다. 오늘 저녁엔 라면을 밤참으로 먹을 것인가. 그리고 아내에게 다시 물을지도 모르겠다. '라면 먹을래?'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사도행전 9:19)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Dr. 건스테드의 정통 카이로프랙틱 철학을 이어 받은 보스턴 건스테드가 개원을 기념하여 스페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개원기념 스페셜

★★★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reg.$250)
- 7월18일 - 8월31일

일반보험, 학교보험, 유학생보험 메디케어, BCBS, Tufts, 등 각종 보험 접수

진료과목

- **척추계통**
  급성 목 / 허리 염좌 및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통증
- **신경/순환 계통**
  손발 저림, 방사통, 만성 통증,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 직장 / 운동 관련 사고**
- **학생 / 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Tel. 617.277.0648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77 Pond Ave. Suite 101, Brookline, MA 02445
Email: bostongonstead@gmail.com
Web: www.bostongonstead.com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7. 토지할당을 통한 동화정책 (1)

도스법(토지할당법)

멕시코전쟁(1846-48), 남북전쟁(1861-65)과 평원인디언전쟁(1854년 그래턴 중위 사건 - 1881년 시팅불의 투항)이 모두 끝나고 오늘날의 미합중국의 근간이 완성된 1880년대의 미국은 앞으로 인디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치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인디언들을 마냥 인디언보호구역에 가둬 놓고 정부배급에만 의존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인디언도 일종의 소수민족으로 취급하여 다른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주류사회에 동화시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인디언들에게 백인문화를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칼라일과 같은 기숙학교를 설립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백인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철저히 주입시켰다.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보호구역내에서 부족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부족공동체를 어떻게든 해체하고 백인식 개인주의를 도입하여 궁극에는 한 사람의 보통 시민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런 목적으로 1887년 토지할당정책이 시작되었다.

1887년 2월 7일 당시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일반토지할당법(General Allotment Act)은 흔히 최초 입안자의 이름을 따서 도스법(Dawes Act)이라고 부른다. 도스(Henry Laurens Dawes) 상원의원은 비교적 인디언 친화적인 인물로서 백인들로 구성된 인디언 후원단체를 이끄는 등 인디언의 문명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다. 한 예로 그가 이 법을 기초하면서 인디언 부족의 성인 남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논의 과정에서 도스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도스(Henry Laurens Dawes) 상원의원〉

도스법의 도입목적을 요약하면, 부족 공동소유의 땅을 개인에게 할당함으로써 부족공동체를 해체한 후 인디언들도 주법을 따르도록 만들고, 자족형 자영농을 육성하여 인디언에 대한 정부지출 부담을 경감하고, 할당하고 남는 땅은 백인 정착민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다. 도스법의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세대주에게 160에이커(약 20만 평)를 나누어주고 18세 이상의 미혼자에게는 80에이커를 18세 이하에게는 40에이커를 할당하되 받은 토지는 25년간 미국정부에 신탁하여야 하며, 향후 4년의 기간 안에 할당받을 땅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직권으로 할당지를 선택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일단 토지를 할당받게 되면 미국시민이 되고 주의 법률에 따라야 했다. 체로키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오클라호마주에 해당하는 인디언 테리토리(Indian Territory)에 거주하던 7개 부족 등은 토지할당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1898년 커티스 법(Curtis Act) 제정에 의하여 도스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들 부족들도 포함되었다.

할당받은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일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아니하였다. 백인에게 넘겨줄 잔여지는 대체로 좋은 땅으로 떼어 놓고 인디언들이 할당받은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열악한 경우도 많았거니와 앞마당 텃밭과는 달리 20만평의 넓은 경작지에 농작물을 가꾸기 위해서는 농기구를 구입하는 등 상당한 초기투자가 필요하나 인디언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단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연방의회는 할당받은 토지의 임대를 허용했다. 곧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았다. 그리고 1894년에는 임대허용 조건에 무능력도 추가되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인디언들은 인디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인디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연방정부 주재관(agent)은 거꾸로 백인들과 결탁하여 인디언을 착취하는 데에 앞장을 서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토지할당법의 폐해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06년 버크법(Burke Act)이 제정되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내무부장관이 '능력있는(competent)' 토지소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년간 신탁조건에서 해방되어 언제든지 할당받은 토지를 팔 수 있도록 도스법을 개정하였다. 인디언의 땅을 노리고 있던 백인들에게 아주 잔치용 멍석을 깔아준 형국이 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능력자 인정을 받아내는 일도 만연하였거니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디언들은 당장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 토지를 팔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도스법 시행 당시 54만 km^2 이던 인디언의 땅은 이 법이 폐기되었던 1934년에는 19만 km^2 로 줄어들었다. 도스법 도입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 텔러(Henry M. Teller) 상원의원은 "토지할당 정책이야말로 인디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어서 지구상의 방랑자로 만드는 정책" 이라고 비판하였는데 결국 그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다음 호에 계속)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REAL ID와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

얼마전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서명한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말씀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얼 아이디란, 2005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각 주에서 재량껏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이민법과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주법을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주는 주에서만 국한된 일에 관해서는 연방법에 얽메일 필요는 없으나, commerce power에 의해, 한 주에서 다른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연방의회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24개 주에서 리얼 아이디를 시행하고 있고, 28개 주, 령 에서 2016년 10월 10일까지 연방기관에서 주 운전면허를 받아들이도록 시행 연장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사추세츠주도 그중 하나이며, 최근 주지사가 발표하였습니다.

이 리얼 아이디는 사실 이민상태가 증명하기 어려운 이민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신분증으로 제시해야하는 운전면허인데, 이것에서 구분이 된다면 매사추세츠 주 전체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민 사회에도 변화가 있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미국 주/령이 리얼 아이디를 시행하게 되는데, 2013년 12월 20일 자로 리얼 아이디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령은 사모아 군도, 미네소타, 미조리, 워싱턴 주 입니다.

그럼 과연 리얼 아이디를 통해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운전면허/신분증 정보는 무엇일까요?

관련규정, 정보보관, 운전면허증/신분증 규정, 연방정부 보조금, 이민상태 증명, 데이터베이스 연동, 운전면허증/진분증 필수 발급규정, 연방정부에 사용할 수 있는 필수 규정, 9/11 위원회 규칙 철회, 보안 및 위조방지 규정, 서류의 검증 등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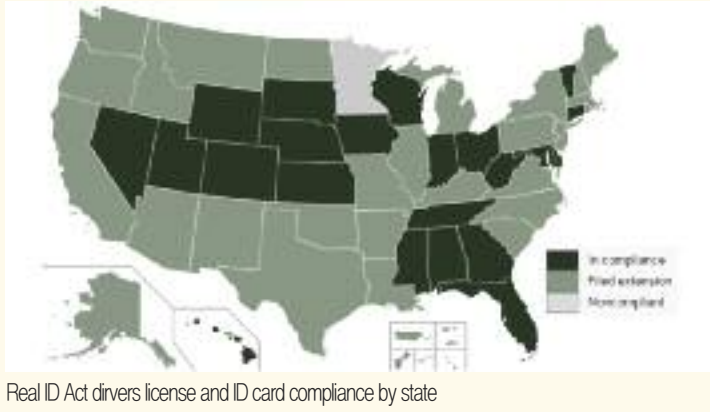
즉, 개개인의 이름, 서명, 생년월일, 성별, 고유인식번호, 거주지주소, 사진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름이 포함된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생년월일 증명서, 이민상태증명서 및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듯, 리얼 아이디 법이 이민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어 미국내 많은 이민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된 역할은 합법적인 이민 상태가 없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보험을 못들게 하게될 것이고, 또 일자리도 잃게 될 것 입니다. J비자나 H비자로 체류하는 단기 근로자들 역시 체류기간과 체류신분의 차이로 인해 운전면허 발급/연장에 있어 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몇몇 주에서는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Not for Federal ID"를 제공하기도 하고, 유타나 테네시 주는 기존의 운전 면허증 대신driving privileges certificates/cards를 발급하여, 이민상태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보험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뭏든 리얼 아이디의 궁극적인 목적은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있습니다만, 테러리스트 활동이 과거 2005년에는 외국인에의해 발현되었다고 하면, 2016년 현재,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의해서도 눈에띄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리얼 아이디의 시행이 2005년 법 제정당시의 목적을 이루게 할런지는 의문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땅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이민자들이 조금씩 번거로움을 인내하는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룰 수 없는 목적이거나 사라진 목적을 막무가내로 시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전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 보여집니다.

오히려 합법신분으로 입국했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떠나지 못하고 묵묵히 살아가던 불법체류 중인 이민자 가정에 공연한 불안감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하다면 우리도 운전만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연방정부청사나 공항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 (예, 여권)을 별도로 소지하여 연방정부청사 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궁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방정부청사라 하면, 소셜시큐리티, 국세청, 이민국, 이민법원, 파산법원, 또 이외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인들이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와 국세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잘 가지 않는 곳이구요... 이민국 역시 이민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이라 크게 문제 없을 듯 싶고, 이민법원은 추방재판 정도가 불법체류자 들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추방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민상태가 부여되고, 영주권을 받게 되므로, 곧 걱정에서 해방되게 되므로, 이것도 크게 문제 없어 보이구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관심이 보여지는 반응으로는 미국 국세청 (IRS)의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민상태에 관계없이 -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 세금보고 하여 세수를 징수하는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국토안보부에서 세무자료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여도 꾸준히 반대하여 왔는데, 리얼 아이디 시행으로 인해 불법체류자이지만 성실납세자였던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것이 우려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이기 때문입니다.



Real ID Act dirvers license and ID card compliance by state

&TV
tbo PLAY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NOW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Arirang NEWS CHANNEL
MBC
SBS
tvN
Olive
OCN
Style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잘 노는 일, 말 처럼 쉬운 일일까? (1)'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XIII -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면, 잘 놀 줄 알아야 한다. 잘 놀 줄 만 안다면, 사는 게 재미없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놀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한국말의 '논다'를 영어로 하면 'play' 이다. 그런데, 왜 한국말의 '논다'와 영어의 'play'의 느낌이 이렇게 다른걸까? 한국에서 자라났던 부모님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이 재미있게 잘 놀면서 놀이에 몰입해본 경험이 있는지, 혹은 그러한 기억이 많지 않았거나, 허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였는지, 조심스레 물어보고 싶다.

1970-1980년에 인기 1등 노래가 있다. 그것은 새마을 운동노래였다. 40대 50대의 부모님들은 거의 세뇌가 될 정도로 이 노래를 열심히 불러야 했고, 열심히 들어야 했다.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서로서로 도와서 땀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세, 우리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 살기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 노래말 속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새마을을 일구기 위해, 일하고 일해서 소득 증대를 늘려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추기는 것이였다.

한국 전쟁을 겪으며, 극심한 가난을 겪었던 386세대의 부모님의 세대는 자식에게 재미난 놀이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성공을 해야한다고 주입시켰다. 대학교를 들어 갈 때까지, 노는 것이 자유로히 허용이 되지 않았고,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갑자기 노는 것이 허용되자, 술, 당구, 춤, 성문화가 노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편안한 놀이' 나 '건전한 놀이' 보다는 자극적인 '몰래 놀이' 나 '불건전한 놀이' 에 빠져 들어가기도 했고, 왠지 놀면 뒤 처지는 느낌? 이렇게 놀다 '노는 애' 로 낙인찍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고, 놀면 왠지 나쁜 짓을 한 양, 죄를 짓는 느낌에 빠져 들기도 했다. 부모님께서 끊임없이 주입하는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으로 건전한 놀이의 행복감도 죄의식으로 다가왔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노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더 고착되어 갔다.

자신이 재미있게 노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다보니, 아이들과 재미있게 노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또한,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지면서 '놀지 말고 공부해' 가 입에 배어 나온다.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라는 속담이 있다. 가능성이 무한한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 속담을 잘 따르려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놀면서 자신의 떡잎을 튼튼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끊임없는 질문을 시작한다. 끊임없이 놀아달라고 보챈다. 자꾸 놀아달라고 보채는 아이를 고집이 세다,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 성질이 있다 하면서 단정짓지 않기를 권유한다. 혹은, 노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부모의 잘못된 믿음때문에 '진짜 놀이' 가 아닌 '학습을 위한 가장한 놀이' 로 대처하지 않기를 권유한다.

진짜 놀이 던 가장한 놀이 던 학습을 먼저 한 아이들은 지능이 높아지고, 학습 면에서 똑똑해지고 논리적이다. 논리가 앞서면, 감정 발달보다 학습지능의 발달이 빨라지게 되고, '놀이' 의 몰입이 힘들어진다. 즉, 노는 재미에 빠지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재미난 놀이는 학습이 아닌 감정의 이입이다. 학습으로는 절대 배워지지 않는 '진짜 놀이' 다. '잘 노는 것은 대상과 잘 어울려, 재미에 빠져 몰입되는 것이고, 나를 망각 할 정도로 대상에 몰입하는 것이다.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다' (김 정운 '노는 만큼 성공한다.' 2011) 이런 몰입은 어린 아이일수록 하기가 쉽다. 천성이 조용한 아이든, 수줍은 아이든, 어느 아이든지 정말 기쁘고 신나는 놀이를 경험해보면 잘 노는 몰입이 무엇인지 안다. 놀이의 몰입이 쉽게 되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정말 잘 논다. 잘 노는 척이 아니라 진짜 건강하게, 떳떳하게 기분좋게 잘 논다. 기분좋게 잘 노는 사람은 누구나가 좋아하게 되어있다. 그들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이고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을 조정하기 보다 따뜻한 관계를 우선으로 하며 잘 놀아주기 때문이다.

제이슨은 만 두살이 되면서 한글과 영어 알파벳을 갖고 놀면서 영재 소리를 들었다. 제이슨의 놀이는 대부분 학습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치원을 들어가면서 부터 그룹과 같이하는 협동놀이에서 왕따가 되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제이슨의 사회성과 독립심의 결여를 염려하셨다. 제이슨의 어머니는 선생님의 염려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제이슨은 학습면에서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아주 월등했기 때문이였다. 고학년이 올라가면서, 더욱 말 수가 줄어들었고 자기 방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9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학교에 지각이 많아졌다. 너무나 잦은 지각에 학교 상담사는 제이슨과 면담을 하였고, 제이슨이 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또한,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의 중독에 빠져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이슨은 테라피 중,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진짜놀이' 의 재미의 몰입을 할 줄아는 교우들이 가장 부럽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사회성의 결여가 너무나 싫고, 자신감을 잃게 했다고 말을 했다. 또한, 제이슨은 자신이 영재(Mensa)그룹에 있는 것은 부모가 좋은 것이지, 머리 좋은 것보다 친구들에게 인기있는 재미난 사회성이 갖고 싶다고 말을 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절실하여 Friendship Website를 찾아 매달 돈을 내며, 베스트프랜드로 가장한 대상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돈을 내지만, 자신이 텍스트를 하면 즉시 대답을 하며 관계를 공유해 주어서 너무 재미나고 행복했다고 이야기 했다.

방학마저 공부로 내몰았던 제이슨 부모는 이번 여름 방학을 제이슨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허용했다. 학교의 도움으로 제이슨은 자폐성 어린이들의 사회성을 도와주는 캠프 리더의 일을 구해서 캠프 리더로 일을 하고 있다. SAT 캠프를 거부하면서, 계속된 싸움으로 스트레스 가득했던 지난 여름 방학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제이슨 부모는 행복해한다. 제이슨은 자폐성으로 언어와 감정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 너무 재미나고 행복해진다고 이야기 한다. 제이슨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폐성 어린이들과 재미나게 놀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짜 놀이' 를 하고 있다. 얼마나 재미있는 지, 단 한번도 지각을 하지 않는다고 부모는 기뻐한다. 삼, 사주 정도 남은 이번 여름 방학, 아이들과 신나게 한번 놀아주면 어떨까? 놀이의 재미난 몰입은 아이들과 재미있게 진짜로 놀아주면 된다.

HURAM | 건강검진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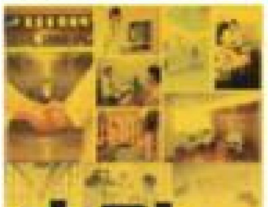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중앙대학교병원

전문 의료진 75명 / 40여개 의료장비(MRI, MRA, MDCT, PET CT 포함)

- 전담 간호사 1:1 사전 맞춤 상담
- 1:1 에스코트 / RFID 전자 태그 시스템
- 첨단장비를 통한 신뢰성 있는 조기진단
- 검진센터 내에서 모든 검사 시행
- 위/대장 내시경 당일 동시검사 시행
- 진료과목별 전문의 교수의 시술 및 판정
- 신속한 외래진료 협진 및 응급 의료 시스템
- 결과 및 영양상담과 과거 검진결과의 비교분석



휴람 3주년기념 특/별/할/인

12월 31일(토)까지

기본검진 프로그램

★휴람을 통한 예약시 할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50세미만] 55만원 →49만5천원

[50세이상] 67만원 →60만3천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선택검사 1 (저선량 흉부 CT 또는 심장초음파)

여성

[50세미만] 59만원 →53만1천원

[50세이상] 69만원 →62만1천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골밀도, 자궁초음파

정밀검진 프로그램

남성

신체부위별 정밀검진

1. 소화기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면), 복부소골반CT — 100만원 →90만원
2. 심장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장정밀혈액,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 100만원 →90만원
3. 뇌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뇌정밀혈액,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 150만원 →135만원

정밀검진

1. 암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저선량 흉부CT, 갑상선 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VIT-D — 200만원 →180만원
2. 프리미엄정밀 : 암정밀검진 + 뇌 · 심장정밀혈액, 뇌 MRI & MRA, 폐 · 심장혈관CT — 300만원 →270만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대장내시경(수면), VIT-D, 복부&골반CT, 뇌 · 심장정밀혈액, 뇌 MRI&MRA, 저선량폐CT · 관상동맥CT

여성

신체부위별 정밀검진

1. 소화기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 110만원 →99만원
2. 심장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장정밀혈액,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 110만원 →99만원
3. 뇌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뇌정밀혈액,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 154만원 →139만원

정밀검진

1. 암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저선량 흉부CT,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유방초음파,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VIT-D — 220만원 →198만원
2. 프리미엄정밀 : 암정밀검진 + 뇌 · 심장정밀혈액, 뇌 MRI & MRA, 폐 · 심장혈관CT — 320만원 →288만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유방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뇌 · 심장정밀혈액, 뇌 MRI & MRA, 저선량폐 CT,

숙박(다이아몬드)검진 프로그램

남성 480만원 →432만원

1. 소화기정밀 : 헬리코박터균(혈청),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2. 심장정밀 : 심장정밀혈액,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3. 뇌정밀 : 뇌정밀혈액,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4. 폐정밀 : 저선량흉부CT / 5. 암정밀 : PET-CT
6. 척추정밀 : 경추MRI, 요추MRI
7. 내분비정밀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비만CT
8. 남성정밀 : 남성호르몬, 전립선초음파
9. 기타 : 빈혈혈액, 치아X-선촬영

여성 500만원 →450만원

1. 소화기정밀 : 헬리코박터균(혈청),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2. 심장정밀 : 심장정밀혈액,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3. 뇌정밀 : 뇌정밀혈액,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4. 폐정밀 : 저선량 흉부 CT / 5. 암정밀 : PET-CT
6. 척추정밀 : 경추MRI, 요추MRI
7. 내분비정밀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비만CT
8. 여성정밀 :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자궁 초음파, 유방초음파
9. 기타 : 빈혈 혈액, 치아 X-선 촬영

★ 토요검진 : 매월 2째, 4째주 토요일 /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교병원 다정관 3층 건강증진센터

HURAM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42)

제대로 하는 투자회사

한국에서 이민 온 일 세대에게 재정계획에 관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편 한편 쓴 글이 900편이 되어갑니다. 필자의 웹사이트(www.bfkorean.com) 방문 횟수가 거의 300만 번이 조회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제대로 하는 투자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설명했지만, 필자 회사가 정확히 어떠한 식으로 운용되는지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의 부탁으로 간단히 소개합니다.

필자의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Best Interest)해서 투자해야 하는 신용의 의무(Fiduciary Duty)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정설계사라고 말하는 보험회사 직원이나 주식 브로커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투자자는 모릅니다. 당연히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의 의무가 있는 재정설계사는 미국 금융감독기관이나 주 정부에 등록된 재정설계사(RIA-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뿐 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신용의 의무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회사는 고객의 돈을 어느 금융회사에 두고 운용합니다. 이러한 회사는 피델리티, 티디어메리트레이트(TD Ameritrade), 찰스왑(Charles Schwab), 메릴린치, 등입니다. 필자의 회사는 모든 고객의 자산을 뱅가드(Vanguard)를 이용하여 투자합니다. 뱅가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비용(Expense)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덱스 펀드를 처음 시작한 곳이 뱅가드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의 평균 비용이 1.33%라고 합니다. 저의 회사가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했을 때 투자 비용은 평균 0.11%입니다. 이런 이유로 필자의 투자 돈은 물론 모든 고객의 자산도 뱅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하루에 뱅가드에 투자되고 있는 돈이 1조 1천억(1 billion)씩 투자되고 있다고 불럼버그(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7-05/hot-tip-buy-vanguard)에서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뱅가드에 있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융회사나 재정설계사가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회사는 뱅가드에 있는 ETF를 이용하여 자산분배와 분산투자를 합니다. ETF 종목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하는 방법은 인덱스 펀드(Index Fund)와 매우 비슷합니다. 투자할 때 인덱스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할 것을 오랫동안 추천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뮤추얼 펀드와 비교해서 투자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도 없고 주식분석가도 없기에 투자비용이 저렴한 것입니다. 투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익률도 인덱스 펀드가 뮤추얼 펀드보다 약 80%나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5년, 10년 이상 통계 발표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자산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은 탑 20%에 속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탑 20%에 속한 뮤추얼 펀드도 매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정설계사는 몸담고 일하는 회사에 돈을 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수료가 있고 비용이 많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필자를 포함해서 모든 재정설계사는 주식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뮤추얼 펀드매니저도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금융회사 대부분은 고객의 자산(Account)에서 3개월마다 수수료를 자동으로 가져갑니다. 필자의 회사는 고객의 자산에서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뱅가드가 일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한 6개월 후 문서(Statement)로 모든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전화 사용료, 수도세, 전기세, 등 우리는 부과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문서로 받습니다. 그런데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남에게 위임하며 투자비용으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모든 투자비용에서 일부만을 알고 있습니다. 재정문서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S&P 500 Index)은 지난 90년 동안 10%입니다. 수익률 10%란 투자 돈이 7.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합니다. 50만 불 투자가 22년 후 40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와 땀인 소중한 돈을 투자할 때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투자하는 재정설계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남에게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앤젤라 엄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톤 아카데믹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톤 아카데믹 컨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톤 아카데믹은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대학 진학을 위한 GPS : 공통지원서 게시(8/1) 및 지원서 에세이"

2016-2017년도 공통지원서 양식(Common Application Form)이 8월 1일 발표됨으로써 새로운 대학 진학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여름철이 끝나 가고 학생들은 새로운 학년과 과외활동 등을 생각하게 되는 이 시기에는 본인이 꿈꾸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분명한 전략과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 특히 12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프로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입학사정관들의 주목을 끌어 다른 수 천 명의 지원자들보다 자신을 드러나게 만들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12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제는 자신의 지원서 에세이 주제를 선정해서, 자신만의 개성과 열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자가 학생들의 대학 지원서 작성 준비와 전략 수립을 도와 주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분야가 바로 에세이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지원서 평가에서 에세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 많은 다른 지원자들로부터 자신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토론하고 논쟁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기억에 남으며, 진솔한 에세이 주제를 선정한다. 지원서 필수 항목인 에세이는 입학 사정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학생 개인의 자기 소개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배경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에세이 주제와 내용, 그리고 논조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입학사정관으로 재직할 당시 수 천 장의 지원서 에세이를 읽어 보았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 필자가 확신하게 된 것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가장 "활용을 잘 못하는 기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세이라는 점이다. 에세이를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자신만의 개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활동 상황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기술하거나, 다른 수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처럼 똑같이 진부하고, 지루한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작성한다.

올해 공통지원서의 자기 소개 에세이(Personal Statement Essay) 질문도 작년과 동일하다고 발표되었다. 지원자들은 5개의 에세이 지문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해서 650자 이내로 답을 작성해야 한다. 이것이 공통지원서 양식에서 기본 에세이(main essay) 역할을 한다. 이 기본 에세이 외에 많은 대학들은 자신들만의 "보충 에세이(Supplemental Application Essays)"를 요구하는데, 이것의 준비와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공통지원서의 기본 에세이를 위해 주어진 5개의 지문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배경, 정체성, 관심, 혹은 재능이 너무나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지원서를 완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2.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일 수 있다. 본인이 실패를 경험한 사건이나 시간을 기억해 보시오.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3. 어떤 신념이나 사상에 대해 도전했던 때를 되돌아 보시오. 무엇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까? 같은 상황이 온다면 여전히 동일한 결정을 할 것입니까?

4. 본인이 해결한 문제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서술해 보세요. 지적 탐구, 연구 주제, 윤리적 문제 등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왜 그것이 본인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혹은 할 수 있었을 것인지를 설명하세요.

5. 본인의 문화나 공동체, 혹은 가족 안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공식적, 비공식적인 일이나 사건에 대해 논하시오.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에세이 지문들은 결코 답하기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자기 분석과 깊은 사고가 필요한 문제들이다. 작년의 경우 80만이 넘는 지원자들이 공통지원서를 작성했다. 그 중에 절대 다수인 47%가 자신의 배경에 관한 질문인 1번 지문을 선택하였다. 22%는 성취감에 관한 5번 지문을 선택하였으며, 17%는 실패와 그에 따른 교훈을 다룬 2번 지문을 택했다. 문제 해결과 관련된 4번 지문을 선택한 학생은 10%였으며, 단지 4%만이 3번 지문의 신념과 사상에 대해서 글을 썼다.

12학년에 진학하는 학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 일찍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좋다. 공통지원서의 에세이 지문들에 익숙해 지고, 이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생각해 보기를 시작하라고 어린 학생들에게 강력히 권한다. 이런 질문들은 자의식과 통찰력, 그리고 분석력을 요구한다.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에 있어 너무 빠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칸 영화제에서 쏟아진 전세계의 극찬과 환호!
올여름 사상 최악의 재난과 맞서라!
OFFICIAL SELECTION
OUT OF COMPETITION
끝까지 살아남아라
★★★★★
"역대 칸느 영화제 최고의 미드나잇 스크리닝 상영작"
- 칸 영화제 집행 위원장 티에리 프레모 -
공유 정유미 마동석 김수안 출무로 흥행군단 일엔
칸느의 총아 세계적 비주얼 마스터 연상호 감독!
천만 영화 흥행 제작진이 만든 최고의 스케일!
부산행
TRAIN TO BUSAN
공유 | 정유미 | 마동석 | 김수안
NEXT ENTERTAINMENT WORLD PRESENTS WELL G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7월 28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617) 423-580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TRAINTOBUSAN-MOVIE.COM FACEBOOK.COM/HITKMOVIE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6년 8월 첫째주)

● Site Visit (현장 검증)

지난 2009년 부터 이민국은 종교비자 신청자와 H-1B 신청자에 대해 (L 비자 신청자는 지난 2014년 부터) 현장 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종교비자는 신청심사의 한 과정으로 H 비자와 L 비자는 승인된 후 비자 취득자가 실제로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1. 현장 검증의 절차와 내용

일반적으로 현장 검증은 미리 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며 하루나 이틀 전에 현장 검증에 대한 통보를 합니다. H 와 L 비자인 경우엔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비자, H 또는 L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는 반드시 신청서의 사본을 회사 또는 현장에 비치하고 계셔야 합니다.

현장 검증은 변호사의 입회가 가능하지만 변호사와 시간을 맞추기 힘든 경우엔 검증 기간 변호사를 전화로 대기 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즉, 신청인 또는 신청단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 신청인의 주소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자 취득자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즉, 신청서에 기재된 직위, 급여 등이 실제와 맞는지,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합니다.

2. 현장 검증 시 주의사항

현장 검증 검사관의 검증 범위는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확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고 계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그 이외의 내용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내용이나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내용과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검사관의 이름과 소속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또한, 협조적으로 검증에 임하시되 너무 무리한 내용을 요구한다면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거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검증은 불시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직원들에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주지 시키고 준비 시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사관이 도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신청서에 서명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 대표, president 또는 인사관련 임원이 서명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신청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안되니 이러한 임원이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사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비자 취득자도 자신의 직위, 업무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Yes' 가 정답일 수 없으니 이럴경우는 추후 확인 후 대답을 하겠다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검증을 통과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서에 기재된 급여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
- 비자 취득자의 work email 또는 work phone number 가 없는 경우
- 비자 취득자의 세금보고서에 보고된 급여액과 신청서의 급여액이 다르거나 수입의 종류를 자영업 (self-employed) 라고 기재한 경우
- 신청서의 노동장소와 실제 노동장소가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은 경우 최악의 경우 신청서 기각뿐만 아니라 차후에 H 또는 L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료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 17 개월 STEP OPT

현재 17개월짜리 STEP OPT 소지자들의 7개월 추가 연장 기한이 오는 8월8일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연장 날짜 전에 꼭 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신청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form I-765 를 보내시면 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O 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 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별칭 때문에 예술가들만 O비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술가 외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케이스들만 살펴보아도 다양한 직업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건축 관련 종사자들 케이스 입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 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건축학 학사를 받은 분들의 대부분은 건축가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가로서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건축 보조사(Architectural draft)로 H-1B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H-1B는 최근 몇 년간 추첨을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4월 1일에 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업이 된 경우 지원의 기회조차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O 비자는 분명 기회입니다. 미국에서 건축학 학사나 석사를 받고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건축디자이너(Design Architect)" 로 O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축 디자이너는 건축의 "예술" 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분명 O비자에 적합한 직업이며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많은 케이스들에서 건축학 학사, 석사를 가진 분들이 "건축디자이너" 로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는 요리 관련 종사자들 케이스 입니다. 최근 요리사라는 직업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훌륭한 요리학교들이 많이 있고 요리 산업의 규모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을 해 보고자 하는 요리사들도 많이 있고 미국에 있는 요리 학교를 방문해보면 한국 학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리사라는 직업은 "맛의 예술가" 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시는 요리사들의 O 비자 케이스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들에서 저희는 요리사들의 요리에 대한 예술적 접근, 음식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리법 개발에 있어 예술적인 측면들을 강조하였습니다.

O비자는 운동 선수들도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운동선수의 O비자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바디빌딩과 같은 특이 운동 종목도 O비자의 대상이 되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문의를 하곤 합니다. 올림픽 종목이 아니고 비인기 종목이라 하더라도 바디빌딩, 싱크로나이즈 수영, 수구,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과 같은 특이 운동 종목들도 O비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바디빌딩의 경우,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술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디빌더가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O 비자는 매우 적합한 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운동 선수였다가 현재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O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곤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케이스에서 전직 싱크로나이즈 선수로 현재 코치로 활동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코치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싱크로나이즈 안무를 짜는 것이기 때문에 안무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민변호사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창의력입니다.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 할지라도 이민법에 대해 잘 알고 케이스를 창의적으로 접근하다보면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케이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O 비자나 여타 다른 비자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SONGLAWFIRM

송동호 대표 변호사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장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 본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기업 고객

국제법
금융법
노동 및 고용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상법 및 M&A
수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노동 및 고용법
부동산
사고 상해
상법
세금, 상속, 유언
수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권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파산
형법

Songlawfirm1 Song law firm LLC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MANHATTAN New York | FORT LEE New Jersey | WASHINGTON DC | FLUSHING New York | EDISON New Jersey | SAN DIEGO California | SEOUL Korea | HANGZHOU China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Lee Associates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지니스 융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이연)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지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형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캠브리지 지역 동양식당 연매상 $500,000 계속적인 매상 증가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네일살롱 고급동네 연매상 $6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몰 안,연매상 $148,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동양식당 로드아일런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드롭 보스톤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번화한 플라자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소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번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BOSTONEdu
Boston Education World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6 보스톤 교육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ACT 정규반
- 기간: 6.20~8.19
  (3주단위,8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처음 시험준비를 시작하는 새내기 학생을 위한 class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8:00~5:30)
  - 파트별 기본개념과 문제유형 숙지
  - 실전연습문제 풀이및 리뷰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SAT, ACT 실전반
- 기간: 6.20~8.19
  (3주단위,8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단기간내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class
  - 반복적인 모의고사를 통한 실제시험의 적응도를 높임
  - 많은 실전문제 확보

III.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1~8.19
  (3주단위,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6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